

vol. 230 / 2026. 07

지능형교통이 만드는 새로운 일상

Monthly ITS

특별기고

- 첨단 교통 기술의 중심 강릉, ITS로 미래교통도시를 열다
- 화면 밖으로 나온 AI, 미래 국토교통 현장 미리보기
- 곧 우리의 일상이 도로교통 AI의 시작

집중조명

- 아시아 최초 '옴니에어' 인증 획득, 대한민국 모빌리티 기술을 선도하는 (주)웨이티즈



Monthly ITS

2026 July Vol. 230
www.itskorea.kr

전화 031.478.0451



특 별 기 고

- 2 첨단 교통 기술의 중심 강릉, ITS로 미래교통도시를 열다
- 10 화면 밖으로 나온 AI, 미래 국토교통 현장 미리보기
- 18 곧 우리의 일상이 될 도로교통 AI의 시작

집 중 조 명

정 책 이 슈

- 24 아시아 최초 '옴니에어' 인증 획득, 대한민국 모빌리티 기술을 선도하는 (주)웨이티즈
- 32 “국가인증 감리제” 도로·교통 분야까지 확대, '26년 우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선발 추진
- 34 인공지능(AI)과 데이터하브로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를 만든다.
- 38 대한민국 첫 K-AI 시티, 원주천안아산에서 먼저 만납니다
- 40 AI 응용제품, 1~2년 내 시장으로 달린다, AX-Sprint 229개 제품 서비스 선정
- 42 자율주행 산업발전 가속화를 위한 국내 최초 E2E 학습데이터 가이드라인 발표
- 44 도로안전부터 건설현장까지... 국민이 체감하는 AI 응용제품 26개 선정
- 45 전 국민 인공지능 경진대회, 개막 3개월 만에 참가자 100만 명 돌파

법 령 제 도

- 46 법령 제·개정 동향

월 간 토 픽

- 50 ITS 관련 주요 뉴스

발 주 정 보

- 56 공공조달 발주동향

협 회 소 식

- 60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월간소식



첨단 교통 기술의 중심 강릉, ITS로 미래교통도시를 열다

ITS 세계총회 추진배경

2026년 강릉 ITS 세계총회 추진배경

ITS 세계총회(ITS World Congress)는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분야 세계 최대 국제행사로 '교통올림픽'이라 불리며, 전 세계 ITS 기술과 정책을 공유하는 글로벌 플랫폼이다

강릉시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국제행사가 도시 인프라 확충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교통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ITS 세계총회 유치로 추진했다.

관광도시 강릉은 매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도시 특성상 성수기 교통혼잡, 주차문제, 교통안전 문제 등 다양한 도시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었다. 강릉시는 ITS 세계총회를 계기로 중소도시에서도 첨단교통 기술을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ITS Korea
사업관리실
윤 백 규 과장

2026년 ITS 세계총회 유치과정

ITS 세계총회 유치과정

강릉시는 ITS 세계총회 개최를 위해 국제행사 유치와 동시에 도시 전역을 ITS 기반 도시로 변화시키는 전략을 마련하였다. 2020년 국토교통부 ITS 세계총회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된 이후, 강릉시는 대도시 중심의 ITS 구현 방식과 차별화하여 “도시 전체가 ITS 체험 공간이 되는 스마트 관광도시”라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강릉의 강점은 국제행사 경험, 관광도시 인프라, 올림픽 유산 활용 가능성, 도시 전역에 적용 가능한 ITS 서비스 구현성이었다.

이를 기반으로 해외 홍보활동과 유치 활동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2022년 최종 평가를 통해 2026 ITS 세계총회 개최도시로 선정되었다.

강릉시는 세계총회를 단순한 국제행사가 아닌, 도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환점으로 삼아 ITS 기반 미래 모빌리티 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강릉 ITS 세계총회 유치확정

강릉시 ITS 인프라 구축 현황

강릉시는 ITS 세계총회 준비를 위해 2021년부터 단계적인 ITS 구축사업을 추진하였다. 총 6회에 걸친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약 975억 원 규모의 ITS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비 약 585억 원을 확보하여 도시 전역 약 110.9km를 대상으로 첨단 교통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2021년 ITS 기반구축사업

첫 단계에서는 도시 교통정보 수집 기반 마련을 중심으로 추진하였다. 주요 구축 내용은 교통모니터링 CCTV, 차량감지시스템(VDS), DSRC-RSE, 차량번호인식시스템(AVI), VMS, 돌발상황검지기, 스마트교차로, 주차정보시스템, 회전교차로 안전지원시스템 등이다. 이를 통해 강릉시는 도시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22년 ~ 2023년 ITS 구축사업

도시정보센터 구축과 스마트교차로, 스마트횡단보도, 실시간 신호정보 개방 등을 통해 시민 체감형 ITS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특히 교통시설별 개별 운영에서 벗어나 도시 전체 교통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였다.

2024년 ~ 2026년 ITS 구축사업

세계총회 개최를 앞두고 자율주행, 주차정보, AI 기반 교통관리 등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ITS 환승허브센터, 스마트횡단보도, 영상식 좌회전 감응신호, AI 기반 위험도로 예측,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주차통합관제 플랫폼 등이 있다.



강릉시 도시정보센터 개관식

강릉시 ITS 구축현황

사 업 명	주요 구축 시스템	비 고
2021년 강릉시 ITS 기반구축사업	CCTV, VDS, DSRC, AVI, 스마트교차로, 도로전광판(VMS), 돌발상황검지기, 화전교차로안전지원시스템, 객체검지시스템 등	사업비 490억원
2022년 강릉시 ITS 구축사업	도시정보센터 이전, CCTV, 도형식 VMS, 주차정보시스템, 스마트횡단보도, 스마트교차로, 자율주행지원시스템 등	사업비 100억원
2023년 강릉시 ITS 구축사업	스마트교차로, 스마트횡단보도, 화전교차로시스템, 실시간 신호정보개방, 자율주행도착안내 단말기 등	사업비 160억원
2024년 강릉시 ITS 구축사업	ITS환승허브센터, 주차정보시스템, 스마트횡단보도, 안전한신호등, 터널관리시스템, 스마트교차로, 문형식 VMS 등	사업비 75억원
2025년 강릉시 ITS 구축사업	ITS환승허브센터, 안전한신호등, 주차정보시스템, 노면감지시스템, 도로전광판, 스마트횡단보도, 좌회전감응신호 시스템 등	사업비 75억원 (구축중)
2026년 강릉시 ITS 구축사업	주차정보시스템, 번호인식카메라, 자가세정식 스마트교차로, 스마트횡단보도, 좌회전감응신호 시스템, 도형식 도로전광판(VMS) 등	사업비 75억원 (사업 발주중)

연차별 ITS 도입효과

강릉시 ITS 연차별 도입효과

강릉시 ITS 구축사업은 단순한 교통시설 확충 사업이 아니라, 도시 교통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통상황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데이터 기반 교통운영 체계 구축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 ITS 사업은 교통정보 수집 기반 마련 → 통합관제 운영체계 구축 → 교통안전 개선 → 관광·도심 교통수요 대응 단계로 발전하며, 도시 교통관리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었다.

ITS 구축 초기 단계인 2021년은 도시 내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집중하였다.

스마트교차로, 도로전광판(VMS), 교통정보 수집시스템, 자가통신망 등 ITS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여 기존 경험과 현장 중심의 교통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시 교통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교차로별 교통량, 차량 흐름, 돌발상황 등 도시 교통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교통 운영자가 상황을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다. 또한 ITS 서비스 이용 만족도 조사 결과 54~57% 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정보 제공 기반을 마련하였다.

2022년은 ITS 운영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킨 시기로, 도시정보센터 구축을 통해 분산되어 운영되던 교통시설을 하나의 체계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기존에는 교차로, CCTV, 교통시설 등이 개별적으로 운영되었다면, ITS 통합관제 체계를 통해 도시 전체 교통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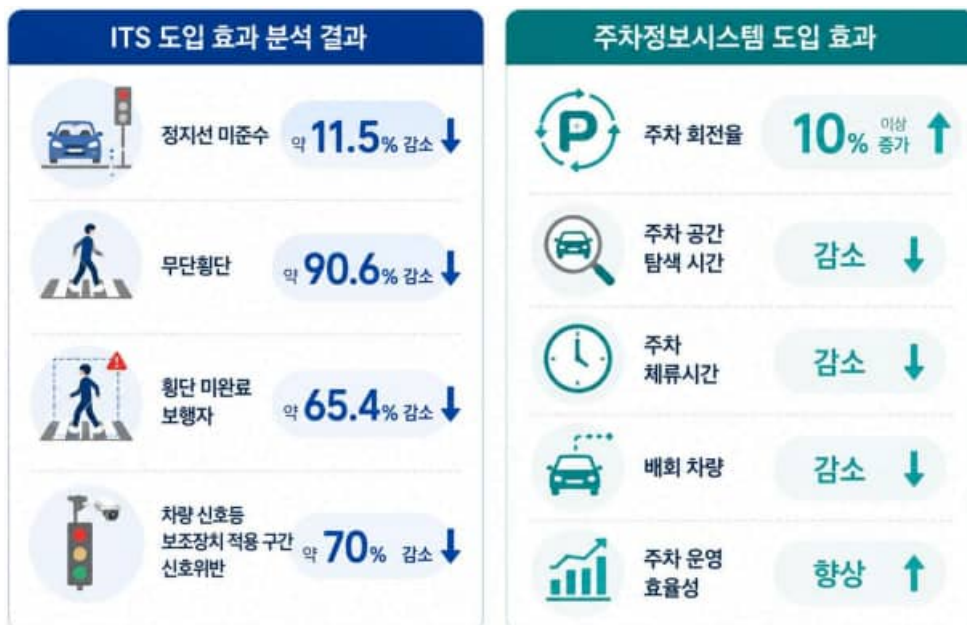
특히 교통정보 수집과 운영 시스템을 연계하여 관제율 52.6%를 확보하였으며, 실시간 교통 모니터링 기반의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교통혼잡, 돌발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판단과 대응이 가능해졌으며, 강릉시는 교통시설 중심 도시에서 데이터 기반 스마트 교통관리 도시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23년 ITS 사업은 교통흐름 관리에서 나아가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높이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스마트횡단보도, 스마트교차로, 회전교차로 안전지원시스템 등을 확대 구축하여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와 운전자 행태 개선을 추진하였다.

ITS 도입 효과 분석 결과와 주차정보시스템 도입 효과



이는 ITS가 단순히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교통 이용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사고 위험을 줄이는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4년부터는 관광도시 강릉의 특성을 고려하여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ITS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특히 관광지과 도심지역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실시간 주차 가능 정보 제공을 통해 차량의 불필요한 배회와 교통혼잡을 줄이는 이용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하였다. 또한 좌회전 감응신호 확대 등 교통수요 대응형 서비스를 통해 교차로 운영 효율을 높이고, 관광 성수기와 도심 집중 교통량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강릉시 ITS 구축사업은 연차별 추진을 통해 단순한 시설 설치를 넘어 도시 교통 운영체계 자체를 변화시키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강릉시는 이러한 ITS 구축 성과를 기반으로 2026 ITS 세계총회를 통해 중소도시형 미래교통 모델을 세계에 선보이고, 향후 AI·빅데이터 기반 교통관리와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시연·시찰 리허설

ITS 세계총회 시연·시찰 계획

시연·시찰 계획

2026 강릉 ITS 세계총회는 전시장에서 기술을 소개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 전체를 하나의 ITS 실증 공간으로 활용하는 현장 중심의 시연·시찰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총회 기간 중 운영되는 기술 시연·시찰은 총 8회 운영 예정이며, 참가자들은 강릉역을 시작으로 주요 ITS 구축 현장을 이동하며 보행안전, 교통운영, 주차관리, 대중교통, 긴급대응 등 강릉시가 구축한 다양한 서비스를 체험하게 된다. 강릉시는 성공적인 ITS 세계총회 기술 시연·시찰 운영을 위해 국토교통부 디지털도로팀과 긴밀히 협력하며 세부 운영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6월 국토교통부 디지털도로팀은 강릉시를 방문하여 실제 시연 예정 장소를 점검하고, 참가자 이동 동선과 기술 설명 방식 등을 검토하는 리허설을 진행하였다.

현장 리허설을 통해 주요 ITS 시설 운영 상태를 확인하고, 시연 과정에서 필요한 개선사항을 점검하였으며, 현재는 세계총회 참가자들에게 강릉의 ITS 구축 성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시연 장소 선정과 세부 시나리오 구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향후 시연·시찰 프로그램은 기술 소개 중심이 아닌 참가자가 실제 도시 공간에서 ITS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강릉형 ITS 모델의 우수성을 보여줄 계획이다.

강릉 ITS 세계총회 그 이후

지속 가능한 ITS 도시 구현

강릉시는 2026 ITS 세계총회를 일회성 국제행사로 끝내지 않고, 그동안 구축한 ITS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교통도시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세계총회를 준비하며 구축한 도시정보센터, 교통정보 수집체계, 스마트교차로, 스마트횡단보도, 주차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ITS 기반시설은 행사 이후에도 시민과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관광도시 강릉의 주요 과제인 교통혼잡과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데이터 기반 교통관리와 스마트 주차체계 고도화를 지속 추진한다.

옥천오거리 교통운영 개선

강릉시는 관광 성수기와 주말 반복되는 도심 교통혼잡 문제 해결을 위해 옥천오거리 및 금성로 일대를 중심으로 ITS 기반 교통개선을 추진한다. 옥천오거리 일대는 관광객 증가와 도심 방문 차량 집중으로 차량 대기와 주차 배회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으로, 단순한 도로 확장 중심의 개선보다 교통 흐름과 주차 수요를 함께 관리하는 스마트 교통운영 체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단계별 ITS 기반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 번째 단계는 교통량 제어를 통한 교차로 운영 개선이다. 회전교차로 진입부 좌회전 신호체계 도입 등 교통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특정 시간대 차량 집중을 완화하고, 교차로 내부 정체 발생을 줄일 예정이다.

두 번째 단계는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을 통한 차량 배회 감소이다. 옥천오거리와 금성로 주변 교통혼잡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목적지 주변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차량이 반복 이동하는 현상으로,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을 통해 운전자에게 정확한 주차 정보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이동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세 번째 단계는 도로전광판(VMS)과 교통정보 연계를 통한 차량 분산이다. 교통량, 주차 가능 면수, 이동 소요시간 정보를 기반으로 운전자에게 최적 주차장 정보를 제공하여 특정 지역으로 집중되는 차량을 분산시키고 도심 교통 흐름을 개선한다.

실시간 주차정보 기반 스마트 주차도시 구현

강릉시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주차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 구축한 주차 통합 플랫폼은 민간 플랫폼 연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 통합 운영 및 데이터 기반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중앙시장 제1공영주차장, 강릉항, 안목 커피거리, 커피거리 부설주차장 등 주요 관광지 주차장을 대상으로 주차면 감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주차 가능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있다.

향후에는 주차면 감지시스템을 확대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목적지 인근 주차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 혼잡도를 낮추는 스마트 주차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확대 대상은 강문1·2공영주차장, 중앙시장 제2·3공영주차장, 경포권 주차장, 주문진 중앙공원 주차장 등 주요 관광지와 도심권 주차장으로, 단계적으로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

강릉시는 단순히 현재 주차 가능 면수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AI 기반 예측형 주차정보 서비스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기존 VMS가 단순 주차 현황 안내 중심이었다면, 향후에는 주차 가능 면수, 이동시간, 주변 혼잡도 등을 종합 분석하여 운전자에게 최적 주차장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발전시킨다.

이를 통해 관광지 주변 차량 집중을 완화하고, 주차장을 찾기 위한 불필요한 이동을 줄여 도심 교통흐름 개선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민간 플랫폼과 연계한 주차Pass 시범서비스를 통해 별도 정산 과정 없이 모바일 기반 자동결제가 가능한 스마트 주차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차Pass 서비스는 출차 대기시간 감소, 민간 플랫폼 내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 관광객 이용 편의 향상 등 이용자 중심의 주차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차면 감지 시스템

미래형 ITS 도시로 발전

강릉시는 ITS 세계총회를 통해 구축한 교통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스마트 교통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교통정보 수집, 통합관제, AI 기반 분석, 스마트 주차,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를 하나의 도시 운영체제로 연결하여 교통문제를 사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에 예측하고 관리하는 도시로 변화해 나간다.

세계총회 이후 강릉의 ITS는 국제행사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 속에서 작동하는 도시 서비스가 될 것이다. 강릉시는 앞으로도 데이터와 기술을 활용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환경을 제공하고, 관광과 일상이 조화를 이루는 대한민국 대표 스마트 교통도시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다.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Physical AI 시대의 대한민국

박민우 사장
현대차·기아 AVP본부장화면 밖으로 나온 AI,
미래 국토교통 현장 미리보기

서론

2026 국토교통기술대전이 지난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렸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Move for Tomorrow”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전시회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했다. 행사의 성격은 개화식부터 분명했다. 기조강연의 제목이 “Physical AI 시대의 대한민국”이었고, 현대차·기아 AVP본부장이자 42dot 대표인 박민우 사장이 무대에 올랐다.

그는 1950년대 질문에서 출발한 AI가 알파고와 ChatGPT를 거쳐, 이제 화면 속 텍스트·이미지 생성을 넘어 현실을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단계, 즉 피지컬 AI 시대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피지컬 AI 시대의 경쟁력은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누가 더 많이, 더 정교하게 확보하고 검증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다만 AI가 현실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단계로 나아갈수록 학습의 조건도 달라진다. 인터넷에 축적된 텍스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빗길에서 차량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공사구간이나 악천후 상황에서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는 실제 환경에서 수집한 데이터 없이는 학습하기 어렵다. 특히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예외 상황, 이른바 엣지 케이스 데이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피지컬 AI의 성능을 좌우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ITS Korea
전략기획팀 과장
김 지 민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기회가 있다고 봤다. 자율주행을 검증할 실제 도로와 도시 환경을 갖췄고, 현대차의 대규모 양산 체계를 기반으로 현실 데이터를 꾸준히 모을 수 있다는 두 가지를 근거로 들었다.

2016년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에서 2026년 광주 200대 실증으로 이어지는 국토교통부의 실증사업이 그 기반이고, 테슬라가 10년간 약 900만 대를 팔며 데이터를 쌓았다면, 현대차그룹은 연 800만 대 규모로 생산되는 차량으로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했다. 정부의 실증·제도 지원과 기업의 양산·데이터 역량이 맞물리면, 대한민국이 피지컬 AI를 쓰는 나라를 넘어 만들고 이끄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결론이었다.

강연의 시선은 차량과 자율주행 데이터에 있었다. 하지만 현실 데이터가 승부를 가른다는 명제를 놓치지 않는다면 시선은 자연히 도로와 도시, 현장으로 향한다. 자율주행을 검증하는 실증 도로도, 데이터를 쏟아 내는 주행 환경도 결국 국토교통의 현장 위에 있다. 피지컬 AI가 가장 먼저 부딪혀야 하는 자리가 이곳이다.

이 현장에서 피지컬 AI는 화면 속에서 데이터를 보여주던 AI에서 로봇과 자율주행차, 자동화 장비의 몸을 얻어 도로와 건설 현장, 공역을 직접 누비고 다닌다. 다만 국토교통 현장은 실험실과 다르다. 도로와 철도, 공역은 모두 안전과 직결되는 공간이어서, 잘 움직이는 기계 한 대만으로는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 차량과 장비가 노변 인프라·운영 플랫폼과 연결되고 관제 체계 위에서 함께 돌아갈 때 비로소 실제 운행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이곳에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가 나란히 필요하다. 하나는 스스로 인식하고 움직이는 피지컬 AI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아래에서 받쳐주는 인프라·운영·관제 체계다. 전자가 '무엇이 움직이는가'라면, 후자는 '그것이 어떻게 안전하게 굴러가는가'이다.

이번 전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두 축이었다. 사람이 직접 확인하고 판단하고 수행하던 시공과 안전관리, 점검과 반복작업의 일부가 피지컬 AI 기반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으로 옮겨가고 있었고, 그 작동을 떠받치는 인프라와 운영·관제 체계도 함께 진화하고 있었다.

전시를 통해 본 국토교통 R&D의 확장

전시는 모빌리티, 스마트건설, AI시티, 우주항공, 혁신기업 다섯 개 존으로 나뉘었고, 여기에 학·협회 부스와 주체관이 더해졌다. 구획 자체가 하나의 지도처럼 읽혔다. 국토교통기술의 범위가 교통수단이나 시설물 단위를 넘어, 이동과 건설, 도시 운영, 항공, 공간정보, 산업화까지 넓어졌다는 뜻이다.

각 분야가 따로 놀지 않는다는 점도 눈에 띄었다. 자율주행은 도로 인프라와 맞물리고, 스마트건설은 현장 데이터와 로봇을 함께 요구한다. AI시티는 공간정보 위에서 돌아가며, UAM은 기체와 함께 관제와 위치정보 체계가 관건이다. 개별 기술을 늘어놓은 전시장이라기보다, 통합 운영체계로 옮겨 가는 국토교통 R&D의 현재 좌표를 보여주는 구성이었다.

전시 규모 자체도 컸다. 81개 기관이 409개 부스를 채웠고, 자율주행과 철도를 모은 모빌리티존이 133개 부스로 가장 컸다. 또 올해는 미래기술을 패널이 아니라 실물과 시뮬레이터로 꾸민 부스가 많이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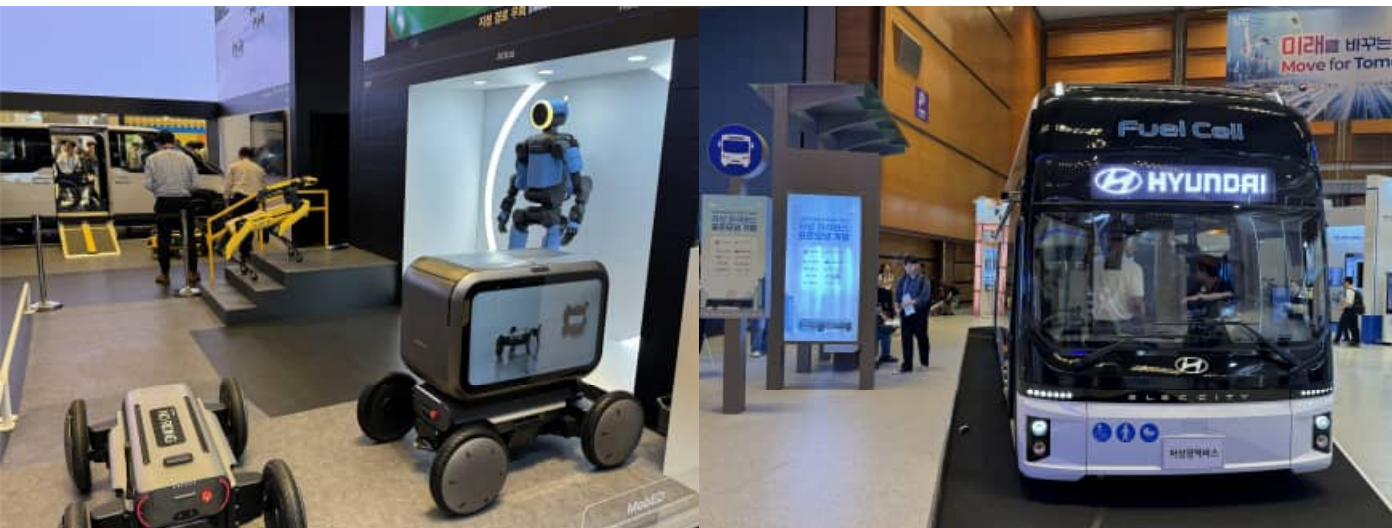
모빌리티: 차량의 지능에서 도로의 지능으로

모빌리티존에서 가장 시선을 끈 곳은 현대자동차그룹이었다.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목업으로, 사족보행 로봇 스팟이 실물로 서 있었고, 그 옆으로 이동형 모빌리티 플랫폼 모베드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 PV5 WAV가 놓였다. 전시관 안에서 로봇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을 통해 AI가 화면 속 생성을 넘어 현실에서 움직인다는 기초강연의 메시지를 눈앞에서 다시 떠올리게 했다.

같은 부스 안쪽에는 노후 디젤기관차를 대체할 3MW급 수소기관차 모형과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시속 370km를 겨냥한 EMU-370 고속차량 모형과 대차 시제품도 함께 전시돼, 현대차그룹의 모빌리티가 도로와 철도를 아우른다는 점을 보여 줬다.

모빌리티존 한편에는 저장좌석버스연구단 부스가 마련돼, 자동차전용도로 주행이 가능한 저장좌석버스 표준모델 시제품이 실물로 놓였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과 현대자동차 등이 함께 개발한 차량으로, 주행 성능과 교통약자 접근을 함께 고려했다. 차량 내부에서는 비장애인 관람객이 휠체어로 승하차를 체험하는 코너도 마련돼, 교통약자가 버스에서 마주하는 고충을 직접 느껴 볼 수 있게 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아틀라스, 스팟, 모베드와 저장좌석버스 표준모델이 전시되어 있다.



화제는 로봇이 가져갔지만, 같은 모빌리티존의 자율주행기술개발 혁신사업단 부스는 자율주행 서비스와 도로 운영 분야를 중점적으로 보여줬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아이오닉5)과 수요대응형 셔틀, 노면청소 자율주행차(봉고 EV)가 전시됐고, 그 옆으로 도로 위 차량과 보행자의 상황을 읽어 차량 센터로 보내는 노변기지국(Edge RSU)과 자율차-일반차 혼재 흐름을 관제하는 운영 플랫폼이 함께 놓였다.

여기서 인프라가 차량과 나란히 놓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 스스로 보고 판단해 움직이는 자율주행차가 '무엇이 움직이는가' 라면, 도로 위 상황을 수집·전달하는 노변기지국과 혼재 흐름을 관리하는 운영 플랫폼은 '그 움직임이 어떻게 안전하게 굴러가는가'를 맡는다. 서론에서 짚은 두 축이 모빌리티존에서 구체적인 장비와 플랫폼으로 나타난 셈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ITS 분야가 오랫동안 다뤄 온 차량-인프라-운영 간 연계 과제와 그대로 겹친다.

스마트 건설: 장비 자동화에서 현장 운영 혁신으로

스마트건설존은 현장 자동화 로봇과 안전관리 기술에 모았다. 눈길을 끈 것은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한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와 한국도로공사 부스였다. 이곳에서는 파레트 자재운반 로봇, 강구조물 특화 용접협동로봇, 철근 결속 자동화 로봇 등 주로 물리적인 작업을 돕는 '실행' 중심의 자동화 장비들이 현장에서 시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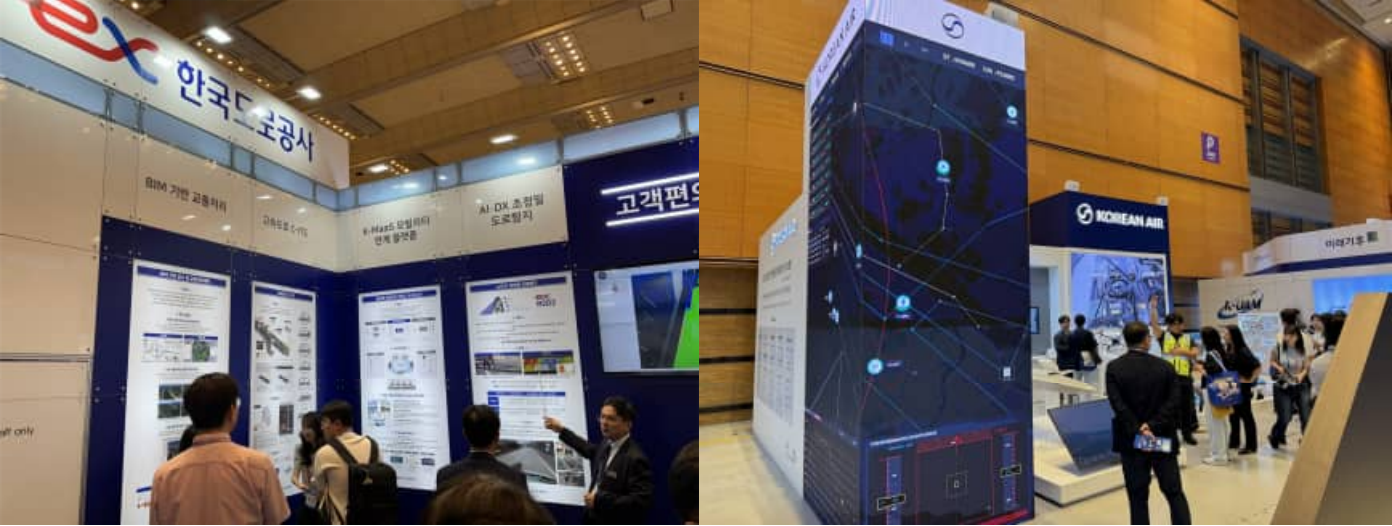
동시에, 이 장비들의 작동을 받쳐줄 '데이터 수집 및 관제' 기술들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지반투과 레이더(GPR) 기반의 AI 지반안전관제 모듈, 지상 무빙플랫폼과 라이다 센서를 단 드론 계측시스템, 그리고 이렇게 모인 점검 데이터를 바탕으로 교량 상태를 살피는 AI 에이전트 'Dr. Bridge AI' 등이 대표적이다.

건설 현장은 변수가 많고 안전과 공정이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 공간이다. 따라서 새롭게 등장하는 혁신적인 장비들이 제 역할을 하려면 단일 기계의 작동을 넘어, 현장 전체의 데이터를 모으고 위험을 읽어내는 '관제 및 운영 체계'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스마트건설의 핵심은 단순한 장비 도입이 아니라 '현장 전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데 있다. 장비와 관제 체계가 맞물려 실제 안전사고와 유지관리 비용을 얼마나 줄였는지가 실질적인 평가 기준이 될 것이다.



철근 결속 자동화 로봇(GS건설)



한국도로공사 부스(좌), 대한항공 부스(우)가 설치되어 관람객들의 주의를 끌었다.

우주항공·UAM·드론: 입체 교통체계로의 확장

우주항공군은 국토교통의 관리 범위가 지상(도로·철도 등)에서 하늘과 위성으로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부스에는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1호기 모형과 위성 궤도·운영 체계를 풀어낸 KPS 개념모형, 위성기반 보강항법(KBAS) 개념모형이 놓였고, 수직 이착륙과 고속 비행이 가능한 유무인 겸용 UAM OPPAV 모형도 함께 전시됐다.

대한항공 부스는 MRO¹⁾ 현장으로 들어간 AI를 보여줬다. 드론이 항공기 상부를, 지상 로버가 하부를 돌며 외관 이미지를 모아 원격 서버로 보내고, 딥러닝 영상인식이 그 영상에서 결함을 찾아내는 구조다. 검사자가 휴대형 장치로 검사 계획 수립과 로봇 관제, 결함 평가, 보고까지 처리하는 인스펙션 스테이션은 체험형으로 마련됐고, 부스 중앙에는 외관검사 개념을 보여주는 B787 축소 모형이 놓였다. 사람 손이 많이 가던 점검·진단 영역에 AI와 로봇이 들어선 사례로, 분석 화면을 넘어 정비 현장에서 작동한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UAM의 운영 쪽을 구체적으로 보여 준 곳은 UAM 국가전략기술사업단 부스였다. 울산 실증지에 들어설 버티포트의 축소 모형과 기체이송장치 실물이 놓였고, 여러 버티포트를 한데 묶어 관리하는 통합운용 시스템과, 버티포트 주변에 드나드는 드론·조류 같은 비협력 비행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상황인식 시스템이 함께 시연됐다.

UAM과 드론은 기체 자체가 먼저 주목받기 쉽지만, 실제 상용화의 핵심 관문은 이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체계에 있다. 항행 안전, 위치정확도, 통신, 인증, 관제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만 실질적인 운항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지상 도로교통 관리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UAM과 드론은 3차원 공역을 기반으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정밀성과 안전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항공 모빌리티 분야의 성패는 기체 성능뿐 아니라 교통관리 체계, 위치정보 인프라, 통신·관제 기반, 안전 기준을 얼마나 통합적으로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제는 지상 ITS에서 축적해 온 관제·운영 경험을 공역 관리 체계로 어떻게 확장해 시너지를 더할지에 대한 전략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1) MRO(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 항공기, 엔진, 기타 장비품 및 부품 등에 대한 정비, 수리·개조, 재생정비 등의 작업을 통해 안전성과 정시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 및 산업을 통칭

시시티와 디지털 국토정보: 도시 운영의 데이터 기반 전환

시시티와 디지털 국토정보 전시는 도시를 데이터로 이해하고 운영하려는 흐름을 보여줬다. 대표적인 사례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시시티존에 나란히 마련한 두 부스였다. LX 부스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플랫폼에 기반한 디지털 인증 서비스를 선보이며 전자 동의 모의참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고, 바로 옆 디지털 국토정보기술개발 사업단 부스는 CCTV 기반 이동객체 인식, 실내외 연속추위, 음성 경로찾기 기술을 현장에서 체험하도록 구성했다.

도시 데이터 기술의 가치는 현재 상태를 시각화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변화와 위험을 예측하고 정책 판단과 운영 의사결정을 뒷받침할 때 비로소 국토교통 인프라로 기능한다. 그런 점에서 디지털 트윈과 공간정보 플랫폼의 과제는 시각화를 넘어 실제 의사결정 체계로 연결될 수 있느냐에 있다. 이번 전시는 시시티와 디지털 국토정보 기술이 ITS, 스마트시티, 재난안전, 교통운영을 잇는 기반 기술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혁신기업존: 연구에서 제품으로

혁신기업존에는 28개 기업이 부스를 차렸다. 국토교통 R&D를 제품으로 풀어낸 새싹 중소기업의 자리였다. '메타모빌리티'는 멀티모달 시로 전기차와 UAM, 전기선박 같은 전동화 모빌리티의 배터리·전력 이상신호를 초기에 잡아내 중대사고를 예측하는 '엘리 솔루션'을 내놔다. '코매퍼'는 비전 시로 드론과 로봇이 모은 영상에서 교량·터널 같은 노후 시설물의 균열과 결함을 0.1mm 단위로 찾아내 안전진단 보고서까지 만들어 주는 소프트웨어를 선보였다.

디지털 국토정보 기술개발 사업단 부스 전경



‘하다’는 도심 공원이나 가로수길, 지하 시설물처럼 정형화되지 않은 환경에서 움직이는 무인 자율주행 차량(UGV) ‘PURIDA-X’를 전시했다. 혁신기업존의 전시 역시 단순한 분석 화면에 머무르지 않고, 차량·시설·도시 현장과 직접 연결되어 실제 환경에서 작동하는 기술로 확장되고 있었다. 이는 혁신기업들 또한 미래 모빌리티 기술의 방향을 현장 적용과 실증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스페인 국토교통 양자협력 SKIT R&D 포럼

SKIT: Spain-Korea Infrastructure & Transportation Technology Program

전시장 밖에서는 국토교통기술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한 국제협력의 한 장면도 있었다. 같은 날 컨퍼런스룸 E5에서 한국-스페인 양자협력 SKIT(Spain-Korea Infrastructure & Transportation Technology) R&D 포럼이 열렸고,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과 스페인 산업기술개발센터(CDTI)가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SKIT은 양국 기업이 함께 수행하는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이다. 한국과 스페인 기업이 최소 한 곳씩 참여해, 산업연구·실험개발(TRL 4~6) 과제를 약 36개월 동안 수행하는 구조다. 이번 포럼에서는 2026년 처음 선정된 4개 과제가 공개됐는데, 첨단 모빌리티와 스마트건설 두 분야에 걸쳐 있었다. 모빌리티 쪽에서는 운전자의 부주의와 졸음을 감지해 경고하고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술(ADDW-DDAW), 인프라를 기반으로 차량 위치를 1m 이하 오차로 측정·검증해 위치 신호의 위·변조를 막는 기술(IMPos)이 뽑혔다. 스마트건설 쪽에서는 위성영상과 센서를 결합한 산사태·토석류 조기경보 시스템(ILEWI), AI 기반 국가 인프라 재난위험 예측 플랫폼(AIDRIP)이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ADDW-DDAW 과제는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ITS Korea)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고, 스페인 BCNVISION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글로벌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운전자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로, 국내 ITS 분야의 기술과 운영 경험이 국제공동연구 체계 안에서 구체적인 협력 과제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CDTI는 선정과제 발표와 함께 차기 SKIT 공모를 2027년 1월경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과 스페인 산업기술개발센터(CDTI)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있다.



도로에서 하늘까지, 현장으로 들어온 AI

전시장을 한 바퀴 돌고 나면 분야는 달라도 향하는 곳은 결국 하나였다. 모빌리티존의 자율주행차와 로봇, 스마트건설존의 자재 운반·철근 결속·교량 점검 로봇, 우주항공과 UAM의 자율 비행체까지, 화면 안에서 데이터를 보여주던 AI가 실제 공간을 인식하고 판단해 직접 대응하고 실행하고 있었다.

수소기관차와 고속차량처럼 AI와는 다른 축에서 진화하는 동력 기술도 한자리에 있었지만, 전시장을 관통한 가장 큰 흐름은 역시 현장으로 들어온 AI, 곧 피지컬 AI였다. 이번 전시에서 확인한 것은 피지컬 AI가 더 이상 개념이나 단어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다만 전시장이 보여준 것은 AI가 사람의 일을 대체하는 장면만이 아니었다. 변화는 두 축으로 나타났다. 하나는 실행이다. 건설현장의 자재 운반과 철근 결속, 교량 점검과 도로 탐지, 자율주행 셔틀과 노면 청소차처럼, 사람이 직접 확인하고 수행하던 일을 로봇과 자동화 체계가 넘겨받고 있었다. 다른 하나는 그 실행을 떠받치는 체계다. 도로의 노면 인프라와 운영 플랫폼, 구역의 관제와 위치정보, 도시의 공간정보는 현장의 AI가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연결하고 운영하는 기반이다. 전자가 화면 밖으로 나온 변화라면, 후자는 그 변화가 굴러가게 하는 조건이다. 국토교통 현장에서 피지컬 AI는 이 두 축이 맞물려야 비로소 서비스가 된다.

그래서 이 변화가 곧바로 완성된 서비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도로와 철도, 건설현장, 구역은 모두 안전과 직결되는 공간이다. 여기서 피지컬 AI의 문턱은 로봇이 얼마나 정교하게 움직이느냐와 함께, 그 판단과 실행을 사람이 믿고 맡길 수 있느냐에 있다. 데이터의 신뢰성, 운영기관과의 연계, 제도와 표준이 함께 갖춰질 때 현장의 AI는 시연을 넘어 운영으로 들어선다.

2026 국토교통기술대전은 피지컬 AI가 도로에서 철도와 항공, 도시와 건설현장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기술은 이미 현장에 가까이 와 있었고, 이제 그것을 운영으로 이어주는 신뢰의 속도가 관건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정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출처: 김윤덕 국토부장관 SNS)





곧 우리의 일상이 될 도로교통 시의 시작

휴머노이드, 교통 경찰로 데뷔

중국, 도로에 휴머노이드 설치

중국의 Physical AI 현장 설치 속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빠른 수준이다. 보통 휴머노이드 현장이라고 하면 제조, 유통, 물류 현장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도로교통 현장을 말한다. 처음에는 경찰과 함께 인도에서 순찰하는 업무를 했지만, 26년 교통 경찰로서 복잡한 차량 도로 환경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도로를 통제하는 휴머노이드가 얼마나 빠르게 확대될지 지켜볼 문제이지만, 팔, 머리, 몸을 활용해서 차량 탑승자에게 수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도로교통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다. 초기 수요처를 찾는 기업과 정부의 입장에서 봐도 도로교통 시장이 의미 있는 시장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다.

휴머노이드가 하는 일

25년 일부 도시에서 포착되었던 교통 정리를 담당하던 휴머노이드가 26년 5월부터 하나의 분대를 구성해서 업무를 시작했다. 15개 로봇으로 구성된 분대에 부여된 임무는 교통정리, 길 안내, 보행자/자전거 탑승자에게 위험/불법 행동 고지 등이 있다.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미래산업/미드스몰캡
박 찬 솔 연구위원

도로 위 휴머노이드 임무

구분	주요 구축 시스템
교통정리	· 중국公安부에서 승인한 총 87개의 수신호를 사용해 주로 좌회전, 직진, 정지 등을 안내한다.
길 안내	· LLM을 탑재하고 있는 로봇들은 안내가 필요한 대규모 광장에서 지역의 교통 상황을 감안한 시민의 최적의 이동 경로 등을 자연어나 화면을 통해 안내한다.
위험 불법 행동 고지	· 로봇들은 영상 해석 알고리즘을 활용해 복잡한 교통 상황을 통제한다. · 자전거가 정지선을 넘거나 헬멧 미착용/유아 자전거 시트 미 설치 등 사례를 발견하고, 무단횡단 등에 대해서 구두 경고를 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 3번의 경고가 누적되면 교통모니터링 센서로 내용이 전달되어 공식적인 경고장을 발부할 수 있다.

중국 경찰에 따르면 휴머노이드 로봇의 교통 정리 임무 투입의 주요 목적은 경찰 인력들의 업무 피로도 개선 및 다른 업무에 인력을 활용하기 위함이다. 사람 경찰 입장에서 반복적인 동작으로 수신호를 하고, 교통 혼잡 지역에서 교통 통제를 하기 위해 하루 종일 호루라기를 불고, 높은 톤으로 경고를 하는 것은 크게 피로감이 쌓이는 일이다. 휴머노이드의 도입으로 인간 분대원은 응급 상황이나 범인 무력화 등 즉각적인 상황 개입, 위험 지역 수사 등의 업무로 재배치되고 있다.



(좌) 도로 모니터링 CCTV, (우) 무단횡단 실시간 스크린 프로젝트

중국은 데이터를 국가 생산 요소로 규정

데이터는 인공지능의 원료

중국 정부는 2019년부터 토지/노동/자본/기술과 동등하게 데이터를 핵심 국가 생산 요소로 바라보고 있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 데이터를 수집/관리/거래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설립했으며, 시장에서는 데이터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가치 평가를 하는 사례들도 늘고 있다. 중국에서 25년 생산한 연간 데이터의 양은 약 52(ZB)규모로 전 세계의 약 1/4 수준을 기록했다.

이런 데이터를 축적/소비하며 가치가 높아질 데이터센터를 국가 단위로 통합하고 친환경 에너지 생산 인프라와 결합해 슈퍼 컴퓨팅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한다. 중국 공산당 중앙 집권 체제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수집 중인데('24년 32ZB '25년 52ZB 생산),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발전했다. 특히 도로교통 분야의 도움으로 중국 정부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얻고 있다.

일종의 데이터 수집 수단인 휴머노이드

휴머노이드 교통 경찰의 역할은 교통 관제 시스템과 연결해 교통 상황 전반에 맞게 운전자들에게 신호를 전달하고 전체 교통의 흐름을 관리하는 것이다. 중국 교통 경찰 휴머노이드는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는데 높이도 2~3m 수준에서 차량을 들여다보는 view를 갖게 되며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 축적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에 CCTV 대수가 7억대로 추정되고, 평균적으로 6대의 카메라가 100명 정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베이징 마라톤과 상하이 도심에 투입된 휴머노이드 교통경찰

CCTV가 걷는 사람이나 차량 눈높이에 맞춰 설치되어 있다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CCTV 카메라가 휴머노이드 안에 내장되면 도로 한복판에 설치해 중국 정부는 더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이미 시진핑 정부는 2015년부터 텐왕(하늘의 그물)이라는 범죄 예방 및 용의자 추적 프로젝트의 일부로 대규모 폐쇄회로 카메라를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사람의 얼굴을 인식해서 개인 신상을 파악하는 적중률이 98%를 기록하는 등 이미 10년 전에도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일부 CCTV의 경우 안면인식뿐만 아니라 음성 수집 기능을 탑재해 두 생체정보를 결합한 방식으로 신원 인식 정확성을 높이고 있다.

중국의 교통 AI

교통 분야에 AI를 접목시키는 중국

중국 도로에서 휴머노이드가 보이는 것은 사실 중국 정부의 AI 산업 도입의 일부에 불과하다. 상해의 경우 IDPS이라는 도로 교통 운영 시스템을 도입해 3.3만개의 교차로에서 교통체증과 상황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가장 최적의 시점에 교차로별 도로 신호를 변경하는 모델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전체 차량의 평균 속도를 14.4% 증가시키고, 정차하는 경우를 10.6% 감소시켰다. 또 이 시스템은 교통 사건 사고, 교통 법규 위반 사례, 경찰 사건 요약 보고서 등을 학습해 유사한 사건들이 도로에서 발생하면 경찰에게 자동 알림이 가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누적되는 사건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또 드론과 로봇틱스를 활용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빠르게 확정해서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데 기존 10분에서 4분으로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중국의 교통 AI 전략

2025년 8월 중국의 여러 도로/교통 관제부처들이(MOT, NDRC, MIIT 등) 5년 이내로 필요한 AI 실행 전략에 대한 의견을 내었다. 내용은 핵심 기술 공급 강화를 위한 세 가지 주요 과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응용 기술 연구 수행, 지능형 제품 혁신 가속화, 종합 교통 AI 모델 시스템 구축이다.

업계의 공통된 요구와 선도적인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산업 가치사슬 전반을 아우르는 AI 제품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통 시스템의 지능화를 향상시키며, AI 적용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혁신 시나리오의 역량 강화 가속화: 업계의 풍부한 적용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복합 운전자 지원, 스마트 철도, 스마트 해운, 스마트 민간 항공, 스마트 우정 서비스, 지능형 건설 및 유지보수, 복합 운송, 스마트 물류 등의 분야에 걸쳐 7가지를 우선 과제로 한다. 시나리오 기반의 혁신과 시범 실증을 통해 복제 및 확장이 가능한 적용 사례를 창출하고, 전반적인 개선을 도모하며 AI 적용의 범위를 넓힌다.

핵심 요소의 보장 강화: 컴퓨팅 능력 최적화, 고품질 데이터세트 구축, 편재형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이다. 지역 여건에 맞춰 컴퓨팅 자원을 확충하고, 교통 분야의 다중 모드 및 다중 시나리오 빅데이터 자원 시스템을 개발하며, 지상-우주 및 클라우드-네트워크가 통합된 데이터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AI 적용을 위한 고속의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기반을 제공한다.

산업 발전 생태계 최적화: 산업 생태계의 인큐베이팅 역량 강화, AI 거버넌스 메커니즘 개선, 인재 유치 규모 확대다. AI 혁신에서 기업 역할 강화, 기초 및 응용 연구 촉진, 새로운 AI 혁신 도입 가속화, 다층적인 인재 양성 체계 구축, AI 혁신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다.

한국에서 교통 AI

국내 도로 위 휴머노이드 도입은 아직 먼 얘기?

우리나라의 경우는 휴머노이드가 도로에서 다니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휠베이스 순찰 로봇들이 도로에서 다니고 있지만, 일부 구간으로 제한된다. 이것도 가능하게 된 것이 몇 년 안됐다.

2023년 일정 요건을 갖춘 실외이동로봇을 보행자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는데, 자율주행 저속/저중량 이동체였고, 보행자에게 가하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되었다. 휴머노이드는 도로교통법에서 어디까지 인간과 유사한 존재로 인정할 것인지, 발생 위험은 누가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국토교통부가 만드는 도로 위 AI

국내에서 휴머노이드 교통 현장의 투입은 사회적 논의가 되기 전이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휴머노이드가 사용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다. 현재 안전/제도가 문제라면 고정형으로 높은 곳에 위치시켜도 된다. 휴머노이드는 아니지만 이미 마네킹 형태로 경찰은 단속하고 있는데, 마네킹에 더 많은 기능을 탑재한 고도화된 버전이다. 정말 AI가 실체가 있고, 휴머노이드라는 몸체를 갖게 된다면 실생활로 들어오게 될 것이 분명한데, 도로 환경이 될 가능성이 꽤 크다고 본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체감 가능한 AI를 만든다는 목표로 국토교통분야 AI 응용제품 26개를 최근 최종 선정했다. 1~2년 내로 시장에 출시 가능한 완성형 제품 대상인데, 총 75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1년 내로 출시 과제에 600억원이 배정되고, 이미 어느정도 완성형에 가까운 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 지원에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

도로/모빌리티 분야에서 자율주행 안전 로봇이 도로 공사구간에서 작업자 안전 확보를 지원하는 모습도 보게 될지 모른다. 포트를 탐지, 실시간 교통상황 분석 등으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과제 참여자들이 보인만큼, 국내에서도 1년 내로 출시되는 의미 있는 도로 위 AI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를 가져본다.





아시아 최초 '옴니에어' 인증 획득 대한민국 모빌리티 기술을 선도하는 (주)웨이티즈

웨이티즈(Wayties)는 첨단 V2X(차량·사물 간 통신) 표준 시험 및 검증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자율협력주행 시대의 안전 인프라를 뒷받침하는 기술 집약형 혁신 기업이다. 설립 초기부터 글로벌 표준화 기구인 옴니에어(OmniAir) 협회 논의에 선제적으로 참여하며 아시아 최초로 공식 인증을 획득하는 독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전체 인력의 대부분을 전문 연구원으로 구성한 핵심 R&D 역량과 글로벌 플러그페스트(PlugFest)에서 축적한 실전 검증 경험을 결합하여, 외산 장비가 주류를 이루던 검증 시장에서 당당히 독자적인 기술 국산화를 이뤄내고 대한민국의 자율주행 통신 검증 기술 주권을 확고히 다지고 있다.

웨이티즈의 독보적인 경쟁력은 복합적인 C-ITS 환경과 실제 도로 주행 상황을 가상 공간에 정밀하게 구현해내는 통합 테스트 솔루션 라인업에 있다. 특히 최대 수백 대의 차량 통신 혼잡 환경을 모의하는 대규모 통신 혼잡 생성 시스템(WCEX-CGTS)을 통해 도심 밀집 구간에서의 데이터 수신율과 지연 시간을 정밀하게 평가하며, 실제 교통 제어 시나리오와 연동된 어플리케이션의 정상 구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정한다.

단순한 계측 장비 공급사를 넘어 파트너사의 미래 모빌리티 완성을 함께 책임지는 전략적 R&D 파트너로서, 고속도로 작업 차량 안전 체계 확산 등 사람 중심의 첨단 스마트시티 기반을 닦아나가고 있다. 첨단 통신 검증 기술을 통해 전 세계 도로의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마침내 '교통사고 제로(Zero)'의 안전한 미래 모빌리티 사회를 완성해 나갈 웨이티즈의 향후 행보가 더욱 주목된다.



“ 세계가 인정한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사고 없는 미래 도로를 완성하겠습니다. ”

- (주)웨이티즈 정홍종 대표

아시아 최초로 미국 '옴니에어'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글로벌 기관들보다 빠르게 최신 V2X 표준 시험 기술을 선점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글로벌 선도 기관 및 대기업들보다 빠르게 최신 V2X 표준 시험 기술을 선점하고 고도화된 솔루션을 출시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경쟁력에서 비롯됩니다.

지속적이고 선제적인 글로벌 표준화 참여 : 웨이티즈는 설립 초기부터 OmniAir 협회 회원사로 등록하여 북미 및 글로벌 V2X 시험인증 규격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표준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표준이 최종 확정되기 전부터 규격에 부합하는 테스트 아키텍처를 선제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였습니다.

기술연구소 중심의 R&D 역량 : 당사는 중견기업으로 안정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전체 인력 중 대부분(총 13명 중 10명의 전문연구원)을 기술연구소에 집중 배치한 기술 집약형 조직입니다. 이러한 인력구조 덕분에 시장의 요구사항과 최신 규격(SAE J2945/1 등)을 분석하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개발 역량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GNSS 음영구간 LTE-V2X 통신성능 검증 용역 수행을 위한 현장장비 구축 사진

모빌리티 생태계 내의 실전 검증 경험 : 당사는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ITS Korea) 회원사로서 국내외 C-ITS 상호호환성 시험 행사는 물론, 글로벌 OmniAir PlugFest에 공식 '테스트 스테이션 프로바이더(Test Station Provider)'로 참여해 왔습니다. 전 세계의 쟁쟁한 V2X 장비들과 실전에서 호환성을 검증하고 데이터를 분석했던 풍부한 현장 경험이 글로벌 표준 기술 선점의 강력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V2X 표준 시험 기술의 선점은 단순히 테스트 장비를 판매하는 것을 넘어, 자율주행 및 C-ITS 통신 규격의 기준을 제시하는 위치에 섰음을 의미합니다. 향후 LTE-V2X 및 5G-NR-V2X로 진화하는 모빌리티 패러다임 속에서 당사의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복합적인 C-ITS 환경에서는 인프라의 안정성 검증이 핵심입니다. 실제 도로 주행 환경을 가상 공간에 정밀하게 구현해내는 귀사만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웨이티즈는 복합적인 C-ITS 환경을 벤치(Bench) 및 실도로상에서 정밀하게 구현하고 검증할 수 있는 독보적인 통합 V2X 테스트 솔루션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V2X 통신 혼잡 생성 시스템(WCEX-CGTS) : 당사의 가장 강력한 차별점 중 하나는 최대 수백 대의 차량이 동시에 메시지를 송출하여 통신 정체를 일으키는 환경을 가상으로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복잡한 도심 교차로나 정체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신 부하 상황을 신호 발생기 및 시뮬레이터를 통해 완벽히 모의함으로써, 밀집 환경에서의 데이터 수신율과 지연 시간을 정밀하게 평가합니다.

실시간 어플리케이션 검증 : 단순히 무선 신호를 생성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도로의 교통 제어 시나리오와 연동된 C-ITS 서비스 기본 기능 시험을 수행합니다. OBU(차량 탑재 단말기) 및 RSU(노변 기지국)가 수신한 메시지가 안전 경로나 도로 작업 구간 주의 등 실제 모빌리티 서비스 상에서 지연 없이 정상적으로 구동되는지 실시간으로 시각화하여 판정합니다.

이러한 차별화된 가상 검증 기술력을 바탕으로, 웨이티즈는 한국도로공사의 “GNSS 음영구간 LTE-V2X 통신능력 검증 용역” 및 ITS Korea가 주관하는 “통신 약조건 상 LTE-V2X 통신능력 시험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기술적 신뢰성을 입증받았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및 주요 부품 제조사들과 견고한 파트너십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경쟁한 기업들과 함께 모빌리티 생태계를 주도하는 귀사만의 협력 전략이 궁금합니다.

수요자 맞춤형(Customized) 솔루션 신속 제공 : 대기업이나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들은 개발 단계에 따라 고유의 고도화된 시험 규격과 까다로운 데이터 분석 툴을 요구합니다.

웨이티즈는 유연한 하드웨어 구조와 자체 개발한 핵심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보유하고 있어, 파트너사가 직면한 통신 에러 및 프로토콜 분석 요구사항에 맞춰 시험 아키텍처를 실시간으로 커스터마이징하여 제공합니다. 이러한 신속한 대응 능력이 파트너사의 R&D 사이클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줍니다.

기술 표준화의 선제적 공유와 생태계 허브 역할 : 당사는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KATECH(자동차부품연구원), KETI(전자부품연구원),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 및 표준화 단체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플러그페스트(PlugFest)를 통해 획득한 상호호환성 데이터와 최신 OmniAir 표준 동향을 파트너사들과 공유함으로써, 완성차 및 Tier-1 부품사들이 글로벌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적 게이트키퍼 및 허브'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내의 주요 기관과 연계하여 진행된 글로벌 PlugFest 기술 시연 현장



종합 자율주행 시뮬레이터 기업과의 전략적 연합 : 통신 검증에 국한되지 않고 모빌리티 전반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로보틱스(Seoul Robotics), 모라이(MORAI) 등 AI 및 3D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분야의 선두 스타트업들과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센서 데이터와 V2X 통신 데이터를 융합한 차세대 자율협력주행 검증 환경을 공동으로 제안하며 비즈니스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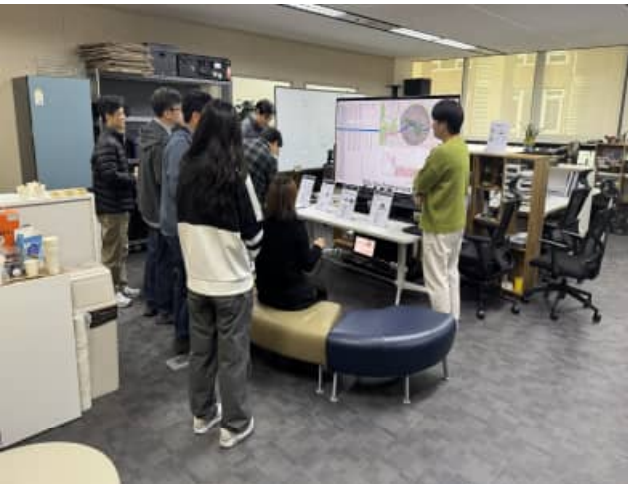
웨이티즈의 협력 전략은 단순한 '공급사'의 개념을 넘어 파트너사의 미래 모빌리티 기술 완성도를 함께 책임지는 '전략적 R&D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제조사들과의 견고한 생태계를 기반으로 전 세계 도로의 안전을 책임지는 표준 솔루션 확산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외산 장비가 주류를 이루던 검증 시장에서 독자적인 기술 국산화를 이뤄내셨습니다. 이러한 고밀도의 기술 혁신을 가능하게 만드는 특별한 조직문화가 있나요?

10여 명의 핵심 연구 인력으로 외산 장비와의 기술 격차를 뛰어넘고 혁신을 지속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웨이티즈만의 고유한 세 가지 조직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OPEN, CONNECT, PLAY'의 혁신 슬로건 실천 : 당사의 핵심 가치이자 비즈니스 지향점인 'OPEN(개방)', 'CONNECT(연결)', 'PLAY(즐거움)'는 조직문화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직급에 얽매이지 않고 최신 기술 트렌드와 연구 성과를 '개방형'으로 공유하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팀 간의 경계 없는 '연결'을 통해 융합형 아이디어를 도출합니다.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하나의 도전적인 '놀이(Play)'처럼 즐길 수 있도록 자율적인 연구 환경을 제공합니다.

웨이티즈가 모회사(LIG 아큐버)에 자사의 V2X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신속한 프로토타이핑 문화 : V2X 검증 기술은 정해진 정답이 없는 첨단 분야입니다. 웨이티즈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주저하지 않고 신속하게 하드웨어를 설계하고 소프트웨어를 코딩하여 필드 및 벤치 테스트에 적용하는 '기민한(Agile) 프로토타이핑'을 장려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는 자산으로 인정받으며, 빠른 피드백 루프를 통해 제품의 완성도를 기하급수적으로 끌어올립니다.

전문성 극대화와 모회사와의 시너지 : 당사는 이동통신 시험·계측 분야의 글로벌 선두 주자인 (주)LIG ACCUVER의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대기업 수준의 안정적인 기술 인프라와 체계적인 품질 관리 프로세스를 이식받았습니다. 스타트업의 유연하고 빠른 의사결정 속도와 모회사의 탄탄한 글로벌 마케팅 인프라가 결합되어 최적의 기술 혁신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웨이티즈의 국산화 성공은 단순한 수입 대체 효과를 넘어, 대한민국의 자율주행 통신 검증 기술 주권을 확보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자율적이고 몰입도 높은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차세대 5G-V2X 국산화 시장 역시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남들이 가보지 않은 어려운 기술적 한계를 극복해 낸 원동력은 결국 '사람'일 텐데요. 웨이티즈가 기술 혁신을 함께 이뤄내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인재상은 무엇인가요?

첫째, 집요한 '전문성'과 스스로 답을 찾는 해결사(Expertise & Problem Solver) V2X 테스트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표준이 급변하고 복잡한 통신 에러가 수시로 발생하는 고난도의 분야입니다.

ITS 아태총회 및 세계총회 등 주요 글로벌 전시회 시연 현장





웨이티즈 정홍중 대표가 2025년도 제23차 ITS 표준총회에서 C-ITS 본사업 지원 및 향후 로드맵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당사가 원하는 인재는 자신의 담당 분야(RF, 임베디드, 무선 프로토콜, 소프트웨어 등)에서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집요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단순한 명령 수행자가 아니라, 고객사와 파트너사가 직면한 통신 불량 및 인프라 불안정 문제를 주도적으로 정의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창의적인 솔루션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태도'를 가장 높이 평가합니다.

둘째, 경계를 허무는 '개방성과 협력적 소통' (Openness & Collaboration) V2X 검증 솔루션은 정밀 하드웨어 기계 제어와 고도화된 소프트웨어 분석 엔진이 완벽하게 융합되어야 완성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영역에만 갇혀 있는 천재보다는, 동료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기술적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하는 'OPEN' 마인드를 가진 인재를 선호합니다.

셋째, 내일의 모빌리티 안전을 그리는 '가치 지향성' (Value-Driven Visionary) 우리가 개발하는 장비는 단순한 통신 계측기가 아니라, 미래 자율주행 도로 위에서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당사의 비전인 "The Smart Way to Test V2X"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내가 짠 코드 한 줄과 내가 설계한 회로 하나가 미래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는 숭고한 가치에 가슴 뛰는 인재를 환영합니다.

웨이티즈는 최고의 인재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 모회사 LIG ACCUVER와의 연계를 통한 전폭적인 기술 교육 및 커리어 성장 기회를 아낌없이 지원할 것입니다.

**미래 자율협력주행 인프라의 안전을 뒷받침하는 필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대중들에게 어떤 가치를 전하는 기업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웨이티즈가 대중들에게 기억되고 싶은 세 가지 기업 가치

첫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을 지키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술 기업" 당사의 솔루션은 일반 대중들의 눈에 직접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축한 V2V, RSE 성능평가 시스템과 통신혼잡 생성 장비(WCEX 시리즈)를 통과한 자율주행 기술만이 실제 도로에 나올 수 있습니다. 대중들에게 웨이티즈는 "그 기업이 검증한 도로와 차량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탈 수 있다"는 절대적 신뢰의 대명사로 기억되기를 희망합니다.

둘째, "정적이고 위험한 도로를 안전하고 역동적인 공간으로 바꾸는 혁신가" 당사는 C-ITS 기술을 활용한 구체적인 도로 안전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나 국도 상에서 추돌 위험이 매우 높은 '고소작업 차량 및 도로작업 차량'에 당사의 V2X 시스템(RSU)을 장착하여, 접근하는 차량들에게 선제적으로 위험 메시지(TIM, BSM)를 송출하는 안전 체계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이처럼 교통 약자와 작업자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사람 중심 첨단 스마트시티'의 기반을 닦는 기업으로 각인되고자 합니다.

셋째, "대한민국 모빌리티 기술 주권을 세계에 빛낸 글로벌 리더" 외산 장비의 높은 벽을 허물고 독자적인 기술 국산화를 이뤄낸 자부심을 바탕으로,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 북미, 유럽 등 글로벌 자율주행 표준 시장에서 표준을 선도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가대표 V2X 기업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맺음말: "The Smart Way to Test V2X"

웨이티즈가 추구하는 미래는 단순히 뛰어난 계측 장비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첨단 통신 검증 기술을 통해 전 세계 모든 도로의 위험 요소를 가상 공간에서 먼저 제거하고, 마침내 "교통사고 제로(Zero)"의 안전한 미래 모빌리티 사회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 안전의 시작점에 언제나 웨이티즈가 서 있겠습니다.

웨이티즈 임직원들이 2025년 단합대회 현장에서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국가인증 감리제” 도로·교통 분야까지 확대 ‘26년 우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선발 추진

국토교통부, 2026. 6. 10.(수)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책임질 우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6년 우수건설기술인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7월 20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국가인증감리제는 기존의 학력·자격·경력 중심 평가방식에서, 실제 현장관리 능력과 전문성, 윤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23.4) 이후 감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제도 도입 이후 건축시설 분야 우수건설기술인 75명을 처음으로 선정한 바 있다.

올해는 기존의 건축시설 분야에 더하여 도로·교통시설 분야까지 선정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로와 교통시설은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대표적인 국가 기반시설로서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와 품질 확보가 요구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건축시설 및 도로·교통시설 분야에서 총 200명 이내의 우수건설기술인을 선발하여, 이들이 주요 공공 건설현장의 건설사업관리를 철저히 수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정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분류기준에 맞춰 우수건설기술인 선정범위를 확대할 예정으로, 건축시설 분야, 도로·교통시설 분야뿐만 아니라 수자원 분야, 단지개발 분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선발된 우수건설기술인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 명의의 ‘우수건설기술인 선정 증서’가 발급(유효기간 3년)되고,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해 선정된 건축시설 분야 우수건설기술인에게는 ‘26년 LH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고, 올해 선정될 우수건설기술인에 대해서도 ‘27년 발주될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과정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2026년도 국가인증감리 신청자격 및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다.

신청대상

‘24년부터 ‘26년까지 실시한 건축시설, 도로·교통시설 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기술인 종합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기술인*을 대상으로 한다. 자격 충족여부는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www.kalis.or.kr)의 신청접수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한정

신청방법 및 일정

서류접수는 7월 20일(월)부터 8월 14일(금)까지 4주간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의 신청접수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후 서류심사를 거쳐 10월 중 면접심사를 실시하고, 11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일정

선정계획 공고	•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 CSI 공고 및 홍보	6.11(목)
‘26년계획 설명회	• 제도 소개, ‘26년 선정계획 및 신청방법 안내 등	7.8(수)
신청서류 접수	• 신청접수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7.20(월)~8.14(금)
서류심사 실시	• 관계기관 검증 등을 통한 서류심사 실시	9월중
면접심사 실시	• 전문지식, 전문소양 면접심사 실시	10월중
심의위원회	• 우수건설기술인 최종 선정에 대한 심의	11월중
선정결과 발표	• 선정결과 개별통보, 선정현황 CSI 등 공개	11월중

인공지능(AI)과 데이터허브로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를 만든다

국토교통부, 2026. 6. 12.(금)

국토교통부는 「2026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결과, 거점형은 경기도 수원시, 특화단지는 부산광역시, 경기도 성남시를 선정하였고, 「2026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공모 결과, 경상남도, 충청남도 태안군을 선정하였다.

「2026년 스마트도시 지원사업」 공모 선정 결과

사업유형	지방정부	사업부제
거점형	경기 수원시	도시를 잇고, 생활을 움직인다.
특화단지	부산광역시	AX Era, AX-Ready City : Centum
	경기 성남시	성남형 라이프모빌리티 특화단지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경상남도	「경남모두다」 체류형 도시조성을 위한 도시활동 AI분석 및 국민체감형 혁신서비스 구축
	충남 태안군	데이터허브 기반 연안 안전·환경 운영 지원 솔루션 ‘태안 안심해(海)’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인공지능·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과 스마트도시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3개년)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2개 유형으로 나누어 공모하고, 6월까지 선정 절차를 진행*하였다.

* 공고(3.13) → 접수(5.11~13) → 예비검토·현장실사(5.14~6.4) → 종합평가(서면 6.9, 발표 6.10)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스마트도시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거점 기능을 할 수 있는 종합 실증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도시 내 스마트도시 혁신기술 연구·개발 기반을 갖춘 지역을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한편,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은 광역에 구축된 데이터허브* 기반으로 범용성을 갖춘 우수한 솔루션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1개년)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사업’을 공모하고, 6월까지 선정 절차를 진행**하였다.

* 교통, 환경, 에너지 등 각종 실시간 도시데이터를 수집·연계·분석하여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도시운영과 문제 해결을 지원

** 공고(4.14) → 접수(5.21~26) → 예비검토(5.27~29) → 종합평가(서면 6.4, 발표 6.11)

각 유형별 선정된 지방정부의 주요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1.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는 지방정부 1곳, 수원시가 선정되었으며, 3년간 최대 국비 160억원(국비:지방비=1:1 매칭)을 지원한다.

수원시는 피지컬 AI 기반의 시민 체감형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구축하고, 기업 실증을 지원하여 데이터 기반의 도시 혁신을 추진한다. 나아가 민·관 협력 거버넌스와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수원형 스마트 성장 모델’을 구현하고자 한다.

카셰어링, 주차로봇 등을 통해 스마트 모빌리티 체계를 구축하고, 로봇배송, 순찰로봇 등 생활편의 및 안전·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며,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리터러시 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시민공감과 창업지원을 위한 산학연 협력 기반 공동 실증센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기업 성장과 시장 창출을 지원하는 스마트시티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거점형: 경기도 수원) 도시를 잇고, 생활을 움직인다

- **(총사업비)** 328.5억원
- **(사업위치)** 수원시 팔달구 일원
- **(주요내용)** 건네주는 한아름 카페어링, 대신해주는 주차로봇, 데려다주는 출퇴근 매퍼서들, 피자컬시 충전 인프라, 피자컬시 시민공감센터, 가져다주는 전통시장 로봇배송, 액티브시 시민체감 운송서비스, 지켜주는 소शल로봇, 시도시운영 재난대응플랫폼, 도시대이터 시 수집DOT, 찾아가는 리더러리 교육, 위아리를 피자컬시 건강케어, 피자컬시 창업지원센터
- **(참여기관)** 현대자동차㈜, 기아 주식회사, 한진해미디엔㈜, 주식회사 씨엘도빌리티, (주)로보틱스㈜, 주식회사 콜로세움코퍼레이션, (주)영국에피크, 수원도시재단



2.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에는 총 2개 지방정부가 선정되었으며, 각 지방정부에 3년간 최대 국비 80억원(국비:지방비=1:1 매칭)을 지원한다.

부산광역시시는 도시데이터를 활용하여 AI 기반 도시관리 운영 및 기업의 도시공간 실증을 지원하는 산업육성형 AX 실증도시를 목표로, 해운대구 센텀시티 일원을 개방형 AI 도시실증 플랫폼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AI 에이전트 도시통합관제, 로봇망 기반 지능형 안전관제 등을 통해 도시운영을 효율화하고, 도시에서 수집된 다양한 데이터를 비식별화·구조화하여 기업이 서비스 개발·실증에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성남시는 의료검증 기반의 고령자 건강관리 지원 모델을 구축하고 미래 모빌리티로 지역 내 앵커공간을 연결하기 위해, 판교테크노밸리와 분당서울대병원 일원을 라이프모빌리티 특화단지로 조성하고자 한다. 데이터 기반 만성질환 관리와 일상생활 수행능력 AI 모니터링을 통해 고령자 헬스케어 모델을 구현하고, 병원·복지시설 생활권에서 원격전진 이동지원, 자율주행 셔틀 제공 및 실증데이터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화단지 : 부산광역시) AX Era, AX-Ready City : Centum

- (총사업비) 168억원
- (사업위치)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 일원
- (특화유형) 지능형관제&안전
- (주요내용) Centum OS(개방형 도시실증 운영 플랫폼) 기반의 AI 멀티에이전트 도시통합관제, 자율형 로봇망 안전관제 등 개방형 AI 도시운영 체계 구축
- (참여기관)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주)디토닉, (주)슈모스랩, (주)스마트플래닝, (주)동림티엔에스, 비에스앤시스팀즈주



(특화단지 : 경기도 성남) 성남형 라이프모빌리티 특화단지

- (총사업비) 168.3억원
- (사업위치)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등 일원
- (특화유형) 모빌리티, 헬스케어
- (주요내용) 원격전진 기반 이동지원, 로봇주차 및 충전로봇, 자율주행 셔틀 / 고령인구 만성질환 관리 및 케어벨 AI 일상생활 수행능력 모니터링 등
- (참여기관) (재)성남산업진흥원, (재)성남시정연구원, (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주)카오헬스케어, (주)저로웍, 가천대학교산학협력단, (주)에스유엠, (주)소아이티, (주)윌피엔에스



3.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에는 총 2개 지방정부가 선정되었으며, 각 지방정부에는 1년간 최대 국비 10억원(국비:지방비=1:1 매칭)을 지원한다.

경상남도는 관광객의 이동과 체류를 데이터로 연결하여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는 경남형 '광역 공동활용 플랫폼 「경남 모두다」를 구축'한다.

관광과 관련된 도시데이터를 활용하여 생활인구 기반 AI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 모니터링 및 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다.

* 관광, 이동, 체류, 소비 흐름을 분석하여 기상, 연경 등 맞춤형 코스 추천, 실시간 혼잡도 분석하여 교통·주차 분산 유도, 소비 패턴을 분석하여 마케팅 지원 등

충청남도 태안군은 데이터허브 기반 AI 연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확산형 해양안전 스마트 운영 지원 솔루션 「태안 안심해(海)」를 개발'한다.

연안지역의 현장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시간 위험 상황을 조기 예측 및 현장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AI 에이전트 기반 통합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조위(물때) 등 해양 기상 데이터를 분석하여 악수·고립 등 이상상황 자동탐지 후 위험지수 임계치 초과 시 관제센터와 119·해경 등 실시간 경보 및 긴급 출동 등

「'26년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선정 지방정부 주요 내용

경상남도 ^{주관} + 17개 시·군(공동수행)	충청남도 태안군 ^{주관} + 충청남도(공동수행)
○ (총사업비) 20억원(국비 10, 지방비 10) ○ (시범솔루션 내용) 관광·유동인구·축제·상권 데이터를 공동활용하여 관광객 이동·체류·소비 흐름을 실시간 분석하고,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생활인구 확대를 지원하는 AI 도시서비스 플랫폼 구축 ○ (관할 외 지원 광역지방정부) 태안군	○ (총사업비) 20억원(국비 10, 지방비 10) ○ (시범솔루션 내용) 태안 주요 해양관광지의 실시간 현장 데이터를 수집·연계, 시기·반 상황인지 및 이벤트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위험 상황을 조기 인지하고, 현장 대응까지 지원하는 연안 상황인지 솔루션 개발 ○ (관할 외 지원 광역지방정부) 경상남도

이번 공모에 선정된 지방정부의 사업계획 자료는 스마트시티 종합포털(www.smartcity.go.kr)을 통해 6월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첫 K-AI 시티 원주·천안아산에서 먼저 만납니다

국토교통부, 2026. 6. 19.(금)

교통시설물 등 다양한 도시 인프라 운영에 AI 기술을 접목시켜 최적화·지능화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K-AI 시티가 현실로 다가온다.

국토교통부는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을 공모한 결과, 최종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공동참여)를 선정하였다.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 공모 선정 결과

권역	지방정부	사업명 및 참여기관
강원	원주	도시가 스스로 이해하고 움직이는 AI 혁신도시 - 에스트래픽(대표), 현대자동차, NHN클라우드 등 7개 기관
충청	천안·아산 (공동)	시로 연결되는 하나의 미래, 천안·아산 - 오케스트라(대표), 업스테이지, 노타시, 한전KDN 등 11개 기관

AI 특화 시범도시(이하 시범도시)는 도시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AI가 도시 전역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도록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규제특례 등을 지원하는 K-AI 시티 선도모델이다.

공공에서는 AI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민간이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개발·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AI 기술 혁신과 산업 성장이 선순환하는 AI 생태계 구현을 목표로 한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강원·충청권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모에는 강원권 3개(강릉, 원주, 춘천)와 충청권 3개(대전, 천안·아산, 청주) 총 6개 지방정부가 응모(5.18~22)하였으며,

사업대상지 현장실사 등 예비검토(5.26~6.12)와 지방정부별 제안서 서면·발표 평가(6.16~17)를 통해 시범도시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반 여건과 AI 역량을 갖춘 권역별 지방정부 1개소(총 2개소)를 최종 선정하였다.

강원권에 선정된 원주시는 에스트래픽(대표), 현대자동차, NHN클라우드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총 7개 기관)과 함께 도시가 스스로 이해하고 움직이는 AI 혁신도시를 제안하였다.

산업·주거·문화가 집적된 강원 원주 혁신도시를 우선지구로 설정하고, 지역 AI 자원(AI NVIDIA 인증 교육센터, 산업용 GPU센터 등)과 연계하여 도시와 함께 AI생태계가 선순환하는 AI시티 조성을 목표로 한다.

충청권에 선정된 천안·아산시(공동)는 오케스트라(대표), 업스테이지, 노타 등 11개 기관과 함께 천안·아산의 공동 생활권을 연결하는 초광역 AI 도시 플랫폼을 제안하였다.

유동인구 및 교통량이 집중되는 천안아산역 일대를 우선지구로 설정하고, 지역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하여 두 도시가 직면한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초광역권 시시티 표준 정립을 목표로 한다.

국도교통부는 7월부터 시범도시 사업 구체화를 위한 기본구상 연구를 추진하고, 법령 정비를 거쳐 '27년 시범도시로 지정할 예정이다.

시범도시로 지정되면 지방정부, 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도시데이터 활용, 실증사업 등과 관련한 규제 특례* 부여와 함께 도시지능센터, 고성능 데이터 수집·활용 시설 등 AI 인프라 조성을 본격 추진하여 '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 일부구역 내 원본 데이터 처리·활용, 교통안전·신호체계 등 교통시설 운영, 자율주행·UAM 등 모빌리티 시범지구 지정의제 등(관계기관 협의 이후 법 개정 추진 예정)

AI 특화 시범도시 개념도



AI 응용제품, 1~2년 내 시장으로 달린다 AX-Sprint 229개 제품·서비스 선정

관계부처합동, 2026. 6. 19.(금)

정부는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 스프린트)'의 선정 결과를 6월 19일 발표했다. 동 사업은 생활·산업 전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I)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완성형 제품을 1~2년 내 상용화하는 사업으로, 각 부처가 현장 수요를 발굴하고 기획예산처가 총괄·조정하는 11개 부처* 협업사업이다. 이번에 229개 제품·서비스**를 선정하여 총 7,540억원을 지원한다.

* 기획처(총괄), 산업·과기정통·국방·농식품·복지·기후·국토·해수·중기부, 식약처

** 일부 과제는 선정·재공고·추가 선정 절차 진행 중(당초 246개 지원 계획)

선정 제품은 일손, 돌봄, 안전 등 시의성 높은 분야에 집중되었다. 농·축·어업 현장에서는 오이·딸기를 자동 수확해 운반하는 로봇, 도축 공정을 자동화하는 로봇, 양식장 급이 시간·양을 자율 결정하는 시스템 등이 감소하는 일손을 대체한다. 고령자 대상으로는 보행 패턴을 감지해 낙상을 줄이는 보행보조차, 스마트홈과 재가 돌봄을 연계한 24시간 돌봄 체계, 호출형 농촌 수요응답 교통모델 등이 이동·돌봄 공백에 대응한다. 산업 현장에서는 시설·화재 위험을 자율 비행으로 점검하는 드론, 현장을 순찰하는 자율주행 세미-휴머노이드 로봇, 위험한 철거작업 등을 대신 수행하는 건설 로봇 등이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생활 전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이색 제품도 다수 선정되었다. K-소스·장류의 맛·풍미를 설계하고 발효 이상을 감지하는 제조 지능화 솔루션은 전통의 맛을 데이터로 표준화하며, 한강에서 위험 소리를 감지해 구명장비·드론 출동을 지시하는 자율구조 시스템은 인명 보호에 기여한다. 이 밖에도 바닷속 오염을 자율 탐지·청소하는 환경미화 로봇, 폐전자제품 내 유가금속을 AI가 분석하고 로봇이 선별·회수하는 도시광산 자원회수 시스템 등이 포함되었다. 일상의 익숙한 영역부터 인력이 달기 어려운 분야까지 AI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선정과제 대부분(209개, 91.3%)은 제품을 실제 도입·사용할 수요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된다. 개발 단계부터 수요기업이 참여함에 따라, 상용화 이후 초기 판로 확보와 현장 안착까지 원활히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K-소스 제조 AI 솔루션은 개발기업과 함께 식품기업이 도입기업으로 참여하여, 제품 완성과 동시에 실제 생산라인에 적용될 예정이다.

AX 스프린트 선정결과 대표 사례

농·축·어업 일손 감소 대응	○ 오아딸기를 스스로 수확해 선별장으로 자동 운반하는 로봇 ○ 크기·형태가 제각기 다른 축산물 도축 공정을 자동화하는 로봇 ○ 양식장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는 시간·양을 스스로 결정하는 시스템
고위험 산업 현장 안전관리	○ 드론이 자율비행하며 시설·작업자 안전, 화재 등 감지하는 시스템 ○ 산업 현장 안전관리 위한 자율주행 세마-휴머노이드 로봇 ○ 위험한 철거작업 등을 대신 수행하는 건설 로봇
고령자 맞춤형 이동·돌봄 서비스	○ 고령자 이동시 패단 균형 변화를 감지해 넘어질 위험을 줄여주는 보행보조차 ○ AI 스마트홈 기기와 재가 돌봄 서비스 연계 통한 24시간 돌봄체계 ○ 실시간 호출에 따라 버스가 찾아가는 농촌특화 수요응답형 교통모델
이색 제품·서비스	○ K-소스·장류의 맛 설계, 발효 이상감지 등 공정 지능화 솔루션 ○ 위험 소리 인식 통한 한강 수난사고 감지 및 자율구조 시스템 ○ 해상·바닷속 오염을 스스로 찾아내고 청소하는 바다 환경 미화 로봇 ○ 폐전자제품 속 귀금속을 AI가 분석·선별·회수하는 도시광산 시스템

이번 공모에는 246개 과제 모집에 총 1,604건이 접수되어 평균 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선정기업 중 중소기업이 188개(82.1%), 창업 7년 이내 기업이 59개(25.8%), 비수도권 소재 기업이 98개(42.8%)로 집계되어, 중소·창업·지방기업이 균형 있게 참여하는 성장 기회로 작용한다. 또한 과제 중 국산 AI 모델 채택 과제가 41.3%, 국산 AI반도체(NPU) 채택 과제가 30.6%에 달했다. 이는 국산 AI 모델·반도체가 시장에서 점차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로, 국내 AI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선정 제품의 신속한 시장 안착을 위해 후속 지원을 추진한다. 협약 체결 과정에서 기업별 규제 애로를 조사하고, 필요시 규제샌드박스 등과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우수한 제품에 대해서는 해외전시회, 혁신조달 등 민간·공공 판로 확보도 지원할 예정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AX-Sprint는 시장과 현장에서 바로 쓰일 수 있는 AI 제품·서비스의 상용화를 앞당기는 현장형 재정사업”이라며, “선정기업들이 1~2년 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관계부처가 규제·조달·판로 등을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산업발전 가속화를 위한 국내 최초 E2E 학습데이터 가이드라인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 6. 19.(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학습데이터를 국내 산·학·연이 함께 구축하고 쉽게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자율주행 E2E 데이터 구축 가이드라인 및 규격 정의서」(이하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자율주행 패러다임은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한 하나의 인공지능(AI)이 인지, 판단, 제어를 통합 수행하는 엔드투엔드*(End-to-End, 이하 'E2E')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 방식은 막대한 양의 학습데이터가 필수적인 만큼 웨이모(미국), 바이두(중국) 등 글로벌 선도 기업들도 실증 거리를 확대하며 학습데이터 구축량을 늘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 센서 입력부터 제어 명령까지를 하나의 AI 모델로 구현하는 방식으로, 정의한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Rule-based 방식과 달리 정의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유연한 대응 가능

그러나, 국내는 자율주행 학습데이터를 각 기업·기관이 개별적으로 구축하고 있고, 차종에 따라 센서 위치 등이 다를 경우 학습데이터를 상호 공유하기 어려워 데이터 부족 문제가 지속되며, 이는 데이터양과 인공지능(AI) 성능이 비례하는 E2E 방식 기술개발의 병목으로 작용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국내 상황에서 학습데이터 공유·활용을 극대화하고 기술 동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 E2E AI 학습에 필수적인 데이터 전 주기를 포괄하며, 국내 연구진의 연구 편의성을 높이는데 집중했다.

먼저, ①데이터 수집, 가공, 정합·보정, 라벨링 등 자율주행 E2E 학습데이터 구축 절차를 정의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에는 ②센서 구성과 저장 포맷 등 수집 시스템 요구사항과 이렇게 수집된 원시데이터의 검증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③시나리오 선별 등 데이터 가공, ④위치 보정, 공간 정합 등 정합·보정 방법, ⑤라벨링 항목과 라벨링을 통해 생성되는 학습데이터 셋 규격 등 라벨링 방법을 정리한 후, 이를 기반으로 구축한 ⑥학습데이터 사례를 제시한다.

본 가이드라인은 범부처 자율주행 R&D 사업*의 과제를 통해 개발한 과기정통부 핵심 성과 중 하나이며, 기존의 연구개발 계획에 머물지 않고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동향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과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KADIF),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함께 과제 목표를 상향 조정하면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주도로 개발하였다.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21년~’27년, 과기정통부·산업부·국토부·경찰청 협업)

또한, 가이드라인 초안 수립(’25년 말) 이후에도 ’26년 한국 ITS 학회 특별세션(’26.4.23.), 자율주행 산·학·연 간담회(’26.6.9.) 등을 통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지속 수렴하였으며, 가이드라인이 이론에 그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도시 단위로 대규모 E2E AI 학습데이터 구축을 지원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등에 실제 활용하면서 지속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본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홈페이지(www.kadif.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학교, 기업, 연구소 등 가이드라인을 활용하고 싶은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본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동 활용 가능한 자율주행 데이터 체계가 구축되고, 고품질 데이터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라면서, “향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하고, ’24년부터 매년 개최 중인 ‘자율주행 AI 챌린지’에도 연계하여 본 가이드라인이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율주행 E2E 데이터 구축 가이드라인 및 규격 정의서



자율주행 E2E 데이터 구축 가이드라인 및 규격 정의서

1. 개요

1. 개요

- 자율주행 원자-배출-원단 모듈은 안전성을 확보하고 Rule 기반의 연계를 극복하여 주행-도달-정지-출발-정지-출발(End-to-End E2E)의 형태로 발전
- 주행-도달-정지-출발-정지-출발(End-to-End E2E)의 형태로 발전
- 주행-도달-정지-출발-정지-출발(End-to-End E2E)의 형태로 발전
- 주행-도달-정지-출발-정지-출발(End-to-End E2E)의 형태로 발전

2. 자율주행 E2E 데이터 구축 가이드라인 및 규격 정의서

- 안전성(Autonomous Driving)을 확보하는 안전 모듈(End-to-End)의 형태
- 안전성(Autonomous Driving)을 확보하는 안전 모듈(End-to-End)의 형태
- 안전성(Autonomous Driving)을 확보하는 안전 모듈(End-to-End)의 형태
- 안전성(Autonomous Driving)을 확보하는 안전 모듈(End-to-End)의 형태

3. 자율주행 E2E 데이터 구축 가이드라인 및 규격 정의서

- 안전성(Autonomous Driving)을 확보하는 안전 모듈(End-to-End)의 형태
- 안전성(Autonomous Driving)을 확보하는 안전 모듈(End-to-End)의 형태
- 안전성(Autonomous Driving)을 확보하는 안전 모듈(End-to-End)의 형태
- 안전성(Autonomous Driving)을 확보하는 안전 모듈(End-to-End)의 형태

도로안전부터 건설현장까지...

국민이 체감하는 AI 응용제품 26개 선정

국토교통부, 2026. 6. 25.(목)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1개 부처* 합동으로 추진하는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Sprint)' 일환으로 국토교통 전 분야에 대해 공모를 추진하여 AI 기술이 접목된 총 26개 제품·서비스를 최종 선정하였으며,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한다.

* 기획처, 국토·산업·과기정통·국방·농식품·복지·기후·해수 중기부, 식약처

'AX-Sprint(전력질주)'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기존 AI 지원사업과 달리 단기간(1~2년) 내 시장 출시 가능한 완성형 제품을 대상으로 하여 일상 속 국민의 AI 체감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토교통 AX(AI Transformation)' 사업은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국토·교통'과 '도로·모빌리티' 두 분야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총 147개 과제(국토·교통 82개, 도로·모빌리티 65개)가 접수되어 평균 5.9: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이 중 상용화 가능성, 국민 체감 효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26개 과제(국토·교통 14개, 도로·모빌리티 12개)를 최종 선정하였고 2년간* 총 750억 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 유형 ①(Agile 트랙, 1년 내 시장 출시) : 16개 과제, 600억 원 → '26년 지원

유형 ②(Build-up 트랙, 2년 내 개발 완료) : 10개 과제, 150억 원 → '26~'27년 지원

특히,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과제들은 출·퇴근길 도로 위부터 주거 공간까지 국민의 안전과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어 이번 사업에 대한 기대가 크다.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피지컬 AI 기반의 공간지능 로봇이 아파트나 사무실 실내 환경을 스스로 이해한 후 자동 배송하여 일상 속 편리함을 높이고, ▲AI 건설 로봇이 위험한 철거 작업을 대신 수행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보조한다. 또한, ▲비접촉식 AI 기반 측정장비가 철도종사자의 다중생체신호를 분석하여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선별함으로써 위험 유발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일상 속 AI 체감도를 높이는 기술이 선정되어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도로·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작업구간 내 자율주행 안전 로봇이 도로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AI 기반의 도로상태 분석과 포트홀(도로파임) 자동탐지를 통해 도로 위험요소를 사전 파악하며, ▲실시간 AI 교통상황 분석을 통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편의성을 증진하는 등 도로 안전을 강화하는 AI 기술이 현장에 도입될 예정이다.

전 국민 인공지능 경진대회 개막 3개월 만에 참가자 100만 명 돌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 6. 2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26일을 기점으로 「전 국민 인공지능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 참가자가 개막 3개월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인공지능 관련 퀴즈 풀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작 활동, 인공지능 기반 문제해결 및 기술·서비스 개발, 인공지능 활용 사례 공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초중고 학생부터 청년, 어르신까지 연령과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나 인공지능을 쉽고 친숙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챔피언’(전문가) 및 ‘인공지능(AI) v 새내기(루키)’(대학생)는 5억 원의 최고 상금이 걸린 대회로 1,124개 팀이 참가 신청하여 현재 200개 팀이 본선 과정을 진행 중이다. 6월말 기준, ‘인공지능(AI) 창작대회’ 및 ‘로봇공학 경연대회(로보틱스 챌린지)’는 초중고 학생 2,726명이 모집되었고, 9월까지 전국 권역 지역 예선이 이어질 예정이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인공지능(AI)을 게임처럼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클릭온 인공지능(AI)’은 69만 명, 인공지능이 출제한 퀴즈 문제를 풀어보는 ‘인공지능 퀴즈대회’는 33만 명이 참여하는 등 국민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도 마련했다. 5월에 개최한 ‘경진대회 홍보영상 경진대회(챌린지)’에는 233개 팀이 지원하여 전문가 심사를 거쳐 8개 팀을 선정, 대국민 투표를 진행했다. 그 중, 흥부전을 새롭게 각색한 영상을 만든 ‘오리네 가족’ 팀은 어머니가 기획을, 아들이 영상 제작을 맡아 가족이 함께 도전해 눈길을 끌었으며, “인공지능은 전문가만의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함께 시작할 수 있는 도전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경진대회에 대한 국민적 참여 열기에 힘입어, 인공지능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대표 프로그램인 ‘클릭온 인공지능(AI)’ 시즌1 운영 기간을 당초보다 2주 연장해 7월 21일(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6월 29일(월)부터 경진대회 참가자 100만 명 돌파를 기념하는 행사(이벤트)가 진행되며, 인공지능과 함께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콘텐츠인 감사 편지, 그림일기 등을 만들어 본 ‘우리 가족 마음 잇기 인공지능 경연(AI챌린지)’ 우수작에 대한 온라인 전시회도 6월 30일(화)부터 열린다.

본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및 참가 신청은 「전 국민 인공지능 경진대회」 누리집(홈페이지) (<https://aichallenge4all.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을 통해 간편하게 검색하여 접속 가능하다.

법령 제·개정 동향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시행 2026. 6. 16.] [법률 제21817호, 2026. 6. 16., 일부개정]

[개정이유]

최근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해 ‘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튜닝 승인권자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의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 튜닝 승인 및 검사를 면제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튜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을 출연 또는 지원하도록 하고, 자동차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튜닝을 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종전 기준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운영하다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사업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재등록하는 경우 강화된 기준 대신 종전의 기준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의6.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의6. (현행과 같음) 4의7. “페달오조작방지장치”란 운전자의 가속페달 오조작을 감지하여 의도하지 아니한 급가속을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와 제3항에 따른 일시적튜닝에 대한 승인의 기준·절차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튜닝을 승인하는 자(제77조제8항에 따라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장치로 튜닝 시 제1항에 따른 승인 및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 제3항에 따른 일시적튜닝에 대한 승인의 기준·절차·유효기간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성확인인 기준·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26. 6. 3.] [대통령령 제36373호, 2026. 6. 2., 일부개정]

[개정이유]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까지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79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요건을 인접한 시·도의 스마트도시산업과 연계하여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는 지역 등으로 정하며,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로 하여금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의 협의 및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변경 지정 및 지정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등) ① 시장·군수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의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스마트도시 계획수립권자의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둘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을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특화단지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 2.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여건이 양호할 것 3. 정보시스템 연계 등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의 실증 및 산업 지원 기반을 갖추었을 것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68호, 2025. 12. 30.,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로 항공교통업무 등의 표준화, 관련 인력 수급 및 교육훈련, 관련 시설·장비의 설치, 개량 및 유지·보수 등을 규정하는 한편, 재난의 예방 및 대응에 무인비행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등의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에 ‘화재의 예방·진화, 수색·구조, 산림 순찰 등 재해·재난의 예방 및 대응활동’에 사용되는 경우를 추가하고, 누구든지 통제구역 중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비행금지구역에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무인자유기구를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비행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안 내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9조의2(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8조제3항에 따른 계기비행 절차의 설정 및 공고, 제83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제공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이하 이 조에서 “항공교통업무등”이라 한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2. 항공교통업무등 관련 인력의 수급 및 교육훈련 3. 항공교통업무등 관련 시설·장비의 설치, 개량 및 유지·보수 4. 항공교통업무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5. 항공교통업무등 관련 통계의 수집 및 작성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31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 ① (생 략)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를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하는 경우에는 제129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1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를 화재의 예방·진화, 수색·구조, 산림 순찰 등 재해·재난의 예방 및 대응활동, 응급환자 후송,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하는 경우에는 제129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예정)

[시행 2026. 12. 17.] [법률 제21819호, 2026. 6. 16., 일부개정]

[개정이유]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철도안전 관련 기후변화의 영향 및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선로가 구부러진 구간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선로에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명문화하며,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에 대한 출입·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토지의 소유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철도운영자는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5조(철도안전 종합계획) ① (생 략) ② 철도안전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 8. (생 략) 9. 그 밖에 철도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철도안전 종합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철도안전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 8. (현행과 같음) 9. 철도안전 관련 기후변화의 영향 및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철도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9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운영 등) ① 철도 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안전사고 방지,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 5. (생 략) <신 설>	제39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운영 등) ① 철도 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안전사고 방지,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 5. (현행과 같음) 6. 선로가 구부러진 구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선로



국내외 ITS

월간토픽

2026년 6월은 AI와 자율주행 기반의 지능형교통체계(ITS)가 대중교통을 넘어 물류, 재난, 치안 등 사회 전방위로 확산된 한 달이었다. 완전 무인 차량의 실선 투입과 자율주행 법제화 등 굵직한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K-스마트 교통 기술의 해외 진출 등 미래 모빌리티 상용화와 글로벌 주도권 경쟁이 한층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국내 토픽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Move for Tomorrow)”… 국토교통부 슬로건 발표

국토교통부는 1일 핵심 정책 방향을 담은 새 슬로건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Move for Tomorrow)’를 발표했다. 공간(짓다)과 교통(잇다)을 직관적으로 연결한 이 슬로건은 미래 기술로 편리한 국토공간을 조성하고, 교통 혁신으로 국민 일상을 긴밀히 잇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김윤덕 장관은 이를 국민에 대한 약속으로 삼아 모든 업무를 미래 지향적이고 창의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2026.6.1.)

공주시, 버스정보 시스템(BIS) 개선 시민 교통편의 강화

충남 공주시는 대중교통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공주시버스정보센터시스템정비사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돌입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버스 정보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주요 서버를 이중화해 서비스 안정성을 대폭 높인 방식이다. 아울러 영문 지원 누리집, QR코드 접속 지원, 버스관리시스템(BMS) 구축 등 시민 체감형 편의 기능을 확충함으로써, 기존의 정보 부정확 민원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질을 한층 개선할 계획이다. (코리아플러스, 2026.6.4.)

‘하늘엔 드론·땅엔 AI’...안양시, 첨단 기술로 여름철 재난 사각지대 없앤다

경기 안양시는 여름철 기습 폭우와 폭염 등 자연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무인 드론을 활용한 첨단 재난 안전망을 본격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폭우 대비를 위해 AI 영상 분석과 자율 비행 드론으로 침수 위험을 조기 감지하며, 폭염 시에는 취약계층 대상의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안심 서비스와 구급차 우선 신호 시스템(ITS)을 가동하는 방식이다. 안양시는 재난 감지부터 시민 보호까지 전 과정을 연계해 초기 대응력을 높이고, 향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재난 예측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아시아투데이, 2026.6.7.)

강원 긴급차량 우선신호 광역화...시군 경계 넘는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시·군별로 분산 운영되던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도 차원으로 연계하는 조례안이 10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긴급차량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교차로 통과 시 우선 신호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번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시·군 경계를 넘나드는 광역 출동 시에도 연속적인 신호 제공이 가능해져, 사고 위험을 줄이고 골든타임 확보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2026.6.10.)

카카오모빌리티, 강남 자율주행 데이터로 AI 고도화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전 데이터와 인공지능 파이프라인을 연계한 데이터 플라이휠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자율주행에서는 무단횡단 보행자, 불법 주정차, 갑작스러운 끼어들기 등 발생 빈도는 낮지만 판단 난도가 높은 이른바 엇지 케이스 데이터가 중요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강남 실증을 통해 이런 도심형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ZDNET, 2026.6.29.)

한국도로공사 제20대 유정훈 사장 취임...“신뢰의 길 위에 혁신을 더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유정훈 제20대 신임 사장이 취임하며 국민 신뢰 재건과 미래플랫폼 기업 전환 등 4대 중점 추진 사항을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휴게소의 복합공간 전환, AI 모빌리티 융합 플랫폼 구축, 심야 자율주행 트럭 전용차로 시범사업 등 인프라 및 물류 혁신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교통 분야 전문가인 유 사장의 취임으로 향후 도로공사의 모빌리티 혁신과 신뢰 회복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 2026.6.11.)

"도로 위 자율주행만 미래인가요"...진흙탕서 길 내는 HD현대 AI 기술

HD현대 건설 현장의 구인난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무인 자율 굴착기 및 긴급 자동 제동 기술(E-STOP)을 본격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드론 지형도와 굴착기 센서 데이터를 융합해 AI가 최적의 작업 경로를 스스로 계산하며, 사람과 장애물을 정확히 구분해 장비를 자동 제어하는 방식이다. 스위스 현장 투입 결과 평균 생산성이 120%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 하반기부터 국내 건설 현장에도 해당 스마트 굴착기를 공급해 무인화 작업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극대화할 계획이다.

(비즈워치, 2026.6.14.)

호출·길안내는 옛말... 모빌리티, '피지컬 AI·데이터'로 영토 확장

모빌리티 업계는 단순 이동 중개와 길 안내를 넘어 '피지컬 인공지능(AI)'과 '공간·데이터 플랫폼'을 중심으로 시장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우버는 각각 국내외 파트너사들과 협력해 하드웨어 및 통합 관제 소프트웨어를 결합하는 방식의 연합군 전략을 맺고, 자율주행과 무인 물류·배달 사업을 고도화하는 중이다. 아울러 티맵모빌리티는 지도 중심의 앱 개편과 '이동로그' 서비스 출시로 이동 정보 자산화에 시동을 걸었으며, 그랩(Grab)의 사례처럼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배달, 금융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공간·데이터 전문 플랫폼으로 진화할 전망이다. (국민일보, 2026.6.16.)

"앱 대신 114 누르세요"...카카오모빌리티, '교통약자 전화 호출' 각광

카카오모빌리티는 고령층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114 택시 대신불러주기'와 '택시 웹 호출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복잡한 앱 조작 없이 114 유선 전화나 병원 등 주요 거점 직원의 PC, 자녀의 모바일 앱을 통해 택시 호출과 자동 결제를 대신 지원하는 방식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를 통해 노년층의 디지털 이동 장벽을 해소하고, 향후 시니어 전용 시설과 복지관 등으로 맞춤형 서비스 거점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데일리, 2026.6.15.)

공간정보 규제 풀어 인공지능(AI)·자율주행 키운다

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AI) 및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공간정보 보안 규제를 완화하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이 생산한 공간정보의 보안처리 절차를 신설하고, 기존의 번거로웠던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 규제를 간소화해 기업의 활용 편의를 대폭 높인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디지털트윈 국토 확산과 국토 위성 정보의 민간 유통 체계를 보완함으로써, 향후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을 위한 공간정보 생태계가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2026.6.16.)

에스트래픽, 美 건설협회 어워즈서 최우수상...차세대 지하철 출입구로 무임승차 50% '뚝'

에스트래픽은 인공지능(AI) 딥러닝 기반 차세대 게이트로 미국 건설관리협회(CMAA) 어워드 인프라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고성능 카메라를 통해 부정 승차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차단한다. 실제로 샌프란시스코 광역철도(BART)에 도입된 후 무임승차율은 50%, 범죄율은 17%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사측은 이를 바탕으로 뉴욕 등 북미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머니투데이방송, 2026.6.17.)

에티포스, 글로벌 V2X 칩셋 톱10 기업 선정...2027년 양산 속도

에티포스는 인더스트리ARC의 '2026 V2X 칩셋 시장 보고서'에 퀄컴, 삼성 등과 함께 글로벌 10대 주요 기업으로 수록됐다고 17일 밝혔다. 국내 기업 최초로 단독 프로파일이 실렸으며, LTE와 5G-V2X를 동시 지원하는 'ESAC' 칩셋과 미국 공공 인프라 진출 성과가 소개됐다. 에티포스는 이를 계기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어 2027년 본격 양산에 돌입하고, 2028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자신문, 2026.6.17.)

“AI 응용제품, 1~2년 내 시장으로 달린다”...AX-Sprint 229개 제품·서비스 선정

정부는 인공지능 전환(AI)을 가속화하기 위해 1~2년 내 상용화가 가능한 완성형 제품을 지원하는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 스프린트)'의 선정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총 11개 부처가 협업한 이번 공모는 6.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최종 229개 과제가 선정되었고, 총 7,5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선정된 과제들은 농·축·어업의 일손 부족 대응, 고위험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 고령자 맞춤형 돌봄 서비스 등 시의성 높은 국민 체감형 분야에 집중됐다. 특히 전체 과제의 91.3%가 제품을 실제 도입할 수요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출시 후 현장 안착 가능성을 높였다. 정부는 참여 기업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공공 판로를 지원하는 등 후속 조치를 끝까지 이어갈 방침이다.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2026.6.19.)

AI 순찰차부터 스마트헬멧까지...미래 치안의 실험실

경찰청은 갈수록 고도화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의 첨단 치안 기술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변 위험 상황과 부상자, 무기 소지 여부 등을 스스로 감지하는 'AI 순찰차'와 실시간 영상 분석으로 수배 차량을 식별하는 '스마트 헬멧'이 대표적이다. 또한 미세한 조작 흔적을 분석해 딥보이스 및 딥페이크 영상을 정확히 판별해 내는 AI 기술도 사이버 수사에 힘을 보태고 있다. 경찰은 검증 중인 이러한 첨단 기술들을 조만간 실제 치안 현장에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연합뉴스TV, 2026.6.21.)

노타, LG CNS와 맞손...AI 기반 지능형 교통체계 기술 사업화 추진

인공지능(AI) 기술 기업 노타는 LG CNS와 실시간 지능형 교통 체계(ITS) 기술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LG CNS의 스마트시티 플랫폼 역량과 노타의 비전언어모델(VLM) 기반 영상관계 솔루션 'NVA'를 결합하는 방식이다. 양사는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기회를 공동 발굴하여 해외 교통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및 AI 교통관리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시 인프라 현장에서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고도화된 지능형 교통 체계 솔루션을 구현해 나갈 전망이다. (조선비즈, 2026.6.23.)

현대차가타 등 '부산모빌리티쇼' 총출동 전동화·AI 기술 '쇼케이스'

부산모빌리티쇼 조직위원회는 전동화, 소프트웨어, 인공지능(AI), 목적기반모빌리티(PBV) 관련 신기술을 선보이는 '2026 부산모빌리티쇼'를 2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벡스코와 부산 도심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현대차의 아반떼 세계 최초 공개를 비롯해 기아의 PBV 특장 모델, 제네시스의 마그마 전력, BYD의 차세대 하이브리드 기술 등 국내외 브랜드의 신차가 대거 출품되는 방식이다. 아울러 전기비행기와 미래 항공 모빌리티 기체까지 전시 범위를 확장하여 완성차와 모빌리티 기업들의 첨단 기술 경쟁을 전면 배치할 전망이다. (글로벌경제신문, 2026.6.23.)

해외 토픽

BYD, 자율주행 사고 나면 모든 보상+운전자 보험료까지 책임

중국 전기차 업체 BYD는 자사의 ADAS '갯스 아이' 이용 확대를 위해 도심 주행 보조 기능 사용 중 사고 발생 시 회사가 직접 수리와 보상을 책임지는 신규 서비스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 정책은 중국 내 2000만 원 이하 모델을 포함해 갯스 아이 A와 B 시스템에서 지원되며, 대인·대물 배상은 물론 이용자의 다음 해 보험료도 오르지 않도록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번 서비스 패키지에 사고 보상 정책을 포함시켜 자율주행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줄이고, 실제 사용 비율을 높여 얻은 데이터를 AI 주행 모델 학습에 반영해 ADAS 고도화를 건인한다는 계획이다. (THE ELEC, 2026.5.31.)

역주행·신호무시·경찰추격전...‘미친 운전자’ 정체는 이 회사 AI였다

구글 알파벳의 자회사 웨이모(Waymo)가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업을 미국 11개 도시로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AI) 기술의 맹점으로 인한 새로운 차원의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연방 정부 기록과 소셜 미디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신호 무시, 역주행, 침수 도로 돌진 등 위험 주행 사례가 수백 건 이상 확인되었으며, 구조 활동 방해 및 오인 신고 등의 문제로 인해 차량 리콜과 일부 지역의 고속도로 주행 전면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웨이모 측은 중상을 유발하는 충돌 사고 확률이 낮으며 예외적 사례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관련 전문가들은 자율주행 시가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복잡한 도시 환경에서 더 많은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매일경제, 2026.6.4.)

CCTV에서 AI 관제로, UAE 지능형 교통체계의 확장

아랍에미리트(UAE)는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고자 인공지능(AI) 기반 CCTV 및 지능형 교통관제 시스템(ITS)을 확대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AI 영상분석을 통해 교통 위반과 위험 요소를 실시간 감지하며, 가변정보표지판(VMS)과 차로제어표지(LCS)를 통합 운영해 상황 안내와 차로 제어를 동시에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사고 대응 속도를 높이고 도로 운영과 도시 안전을 통합 관리하는 사전 예방형 스마트 인프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KOTRA, 2026.6.8.)

미 교통부, 대중교통 이용자 체감형 서비스 지표 측정용 신규 대시보드 개발 계획 발표

미국 교통부 산하 연방교통청(FTA)은 미국 전역 대중교통 시스템의 이용자 체감형 지표를 측정하는 새로운 공개 대시보드를 개발한다고 8일 밝혔다. 이 대시보드는 안전 및 보안, 청결도, 보편적 접근성, 실시간 서비스 데이터 가용성, 시스템 신뢰성 등 5가지 핵심 지표를 바탕으로 각 시스템이 발전하는 과정을 추적하는 방식이다. FTA는 오는 2026년 8월 3일까지 해당 지표와 데이터 활용 방안 등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주 정부 간 성공 사례를 상호 학습하도록 지원하고 미국 가족의 요구를 최우선으로 반영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USDOT, 2026.6.8.)

"무인 트럭 41대가 실제 운송"...팹시 미국서 첫 시도

미국의 대표 식음료 기업 팹시코(팹시)가 미국 내 주요 소비자 기업 최초로 레벨4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무인 트럭 41대를 실전 물류에 투입했다고 9일 밝혔다. 가택이 일본 이스즈 모델을 토대로 설계·생산한 이 트럭은 카메라와 라이다 등으로 도로를 분석하며 인간의 모니터링 없이도 항시 자동 제어가 가능한 방식이다. 이는 야간 운행 제약과 기사 구인난을 해소해 물류 효율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는 선제적 시도로, 정시 도착률 99%를 기록하며 실전 공급망 네트워크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자율주행 상용화에 따른 트럭 기사들의 고용 불안과 노조의 반발, 연방 규제 공백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연합뉴스, 2026.6.9.)

2026년 7월부터 캘리포니아, 자율주행차에도 교통위반 딱지 발부...법적 책임 시대 본격 개막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무인 주행 중인 자율주행 시스템 자체에 직접 교통위반 딱지를 발부하는 법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필 텅 전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은 교통 위반 책임을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제조사나 운영사에 귀속시키고 당국과의 소통 수단을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이는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기업들이 알고리즘 개선과 안전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해 산업 전반의 안전 기준을 끌어올릴 전망이다.

(아이티인사이트, 2026.6.16.)

케냐 1,300억원 교통시스템 사업 본격화..."참여자격은 한국기업으로 제한"

케냐 도시도로청(KURA)은 수도 나이로비의 고질적인 교통 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약 1,282억 원 규모의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구축 사업을 본격화하며 입찰 참여 자격을 한국 기업으로 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나이로비 간선 도로망에 스마트 신호등, 자동 차량 단속 시스템(VES), CCTV, 차량 감지 시스템, 가변 전광판(VMS)을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케냐 정부는 교통 IT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는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한 경쟁을 진행해 현장 경찰관의 수동 단속을 디지털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상습 정체 구간을 완화하고 도로 운영 효율성을 대폭 끌어올리는 기대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KPI뉴스, 2026.6.17.)

중국 CIC 컨설팅 "도시 NOA 대규모 배포 진압... 레벨 4 자율주행 상용화 가속"

CIC 컨설팅은 '자율주행 산업 백서'를 통해 중국 내 도시 NOA(Navigation on Autopilot)가 본격적인 대량 배포의 성장 변곡점에 진입했다고 발표했다. 기술 발전과 수요 증가로 중국 도시 NOA 침투율은 2025년 11%에서 2030년 62%까지 급증할 전망이며, 특히 고정밀 지도에 의존하지 않는 데이터 기반 자율주행 방식이 높은 상업적 잠재력을 입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대규모 배포로 축적된 실제 데이터와 경험은 향후 로봇택시를 비롯한 레벨 4 자율주행 상용화를 가속화하여 자율주행 산업 지형을 크게 재편할 전망이다.

(7ITSNEWS, 2026.6.18.)

공공조달 발주동향

본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공공조달 시스템에 등록된 사업으로, 특정 검색어(ITS, BIS, 교통정보, 첨단교통 등)로 검색된 발주정보('26.6.30. 기준)를 요약하여 정리한 자료임
검색일 이후 등록되었거나 미리 설정한 검색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누락될 수 있으며, 상세내용은 별도 확인 필요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업무	공고명	수요기관	설계가격(원)	입찰마감일
기술용역	2026년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용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6,897,000,000	2026. 07. 15.
일반용역	판교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 용역	재단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147,100,000	2026. 07. 15.
일반용역	TS AI 공통플랫폼 고도화 및 민원·전세버스 공시 AI 구축 용역	한국교통안전공단	448,316,087	2026. 07. 20.
일반용역	항만물류통합플랫폼(체인포털) AI 전환사업 감리용역	부산항만공사	374,000,000	2026. 07. 21.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등록

업무	공고명	수요기관	설계가격(원)	입찰마감일
용역	[긴급]2026년 광주전남본부 ITS 구축 책임감리용역	광주전남본부	312,000,000	2026. 07. 10.
용역	2026년 통합영상관리시스템 S/W 개발용역	본사	393,734,000	2026. 07. 13.
용역	[긴급]교통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본사	487,514,800	2026. 07. 16.
용역	[긴급]RoADi(생성형 AI) 고도화 용역	본사	493,343,000	2026. 07. 16.
공사	영상보정 AI 시범운영시스템 구축	본사	447,149,000	2026. 07. 23.

R&D

업무	공고명	수요기관	사업규모	입찰마감일
R&D	2026년도 제3차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AI완전자율운행선박기술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 가원	158.5억원 (12개 과제)	2026. 07. 14.

2026년 강릉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일반사항

사업명 : 2026년 강릉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개월

사업예산 : 6,89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배경 및 목적

최근 5년간 인구수는 -2.81%의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 자동차 등록대수 7.13%증가 및 매년 3천만명 이상의 관광수요로 인해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하계 휴가철 및 행사 등의 효율적인 교통운영을 위한 지능형교통체계(ITS) 시스템의 확대 및 고도화가 필요함

또한 2026년 강릉 ITS 세계총회에 대한민국의 지능형교통체계(ITS) 기술력과 미래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강릉시만의 ITS 서비스 확대와 고도화가 필요한 실정임

이를 위해, 이용자 체감형 ITS 서비스 확대, C-ITS와 협력하는 자율주행서비스 등 중소도시형 ITS 패러다임 선도를 위한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공하고자 함

사업범위

공간적 범위 : 강릉시 관내(ITS 세계총회장 및 주요도로), 도시정보센터

내용적 범위 : 주차정보시스템, 번호인식카메라, 자가세정식 스마트교차로, 스마트횡단보도, 영상식 좌회전감응신호, 도형식 도로전광판, 자가통신망, SW 및 플랫폼 고도화 등

문의처

강릉시 ITS추진과(033-640-4520)

판교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 용역

일반사항

사업명 : 판교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 용역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1일까지

사업예산 : 147,100,000원(부가세 포함)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과업목적

(판교 단거리 통행 수요 해소 필요) 판교는 업무·상업·주거 기능이 복합된 대규모 생활권으로 시간대·별·요일별 이동 수요가 급격히 변동함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서비스 수용성) 판교에서는 현대자동차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진행한 경험이 있으나 임직원 대상으로만 서비스를 진행하여 판교 내 근로자를 포함한 도민을 대상으로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서비스 수용성 확인과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자율주행 서비스 모델 도입 필요

과업 범위

시간적 범위

- 과업기간 : 2026년 10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 운행시간 : 평일 08:00~19:00(주말,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등 미운행)

공간적 범위

-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노선
- 스마트모빌리티실증허브 ↔ 벤처타운(서문) (16개 정류소, 총 11km)

내용적 범위

-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서비스 운영(운행) : 1대
-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배차관리, 차량유지관리, 인력관리(운전자/안전관리자), 안전관리, 만족도 조사 관리 등
-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서비스 운영결과보고서 제출

문의처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시설운영팀(031-888-9008)

2026년 광주전남본부 ITS 구축 책임감리용역

일반사항

사 업 명 : 2026년 광주전남본부 ITS 구축 책임감리용역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6. 11. 30.까지
 사업예산 : 312,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기술용역 적격심사(사전PQ))

과업의 목적

「2026년 광주전남본부 ITS 구축 책임감리용역」사업의 적기 준공 및 품질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정보통신공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감리업무수행에 필요한 과업의 범위, 수행방법, 감리원의 임무 등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감리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함.

과업대상

과업의 범위 : 광주전남본부 ITS 구축 사업
 감리대상 사업 : 2026년 광주전남본부 CCTV 및 VMS 통합설치공사 등 13건
 ※ 감리대상 사업은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감리내용

- | | |
|--|--|
| 1. 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 2.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도면의 검토·확인 |
| 3. 설계도서와 시공도면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 4. 공사가 설계도서,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 5.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 6.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
| 7.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 8.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
| 9.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 10.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확인 |

문의처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교통부(061-883-6152)

ITSK
NEWS

첨단기술로 도로 위 작업자 안전 지킨다... ITS 혁신기술 실증 현장 점검



「2025년 ITS 혁신기술 공모사업」을 통해 발굴된 도로작업구간 능동형 사고저감 기술 실증 현장에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방문했다. 현장 점검은 7월 2일 오후 천안논산고속도로 안전체험장에서 진행되었으며, ACC* 차량의 한계를 보완하고 도로 작업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저감하기 위한 첨단 안전기술의 현장 적용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도로 작업구간은 작업 차량과 장비, 작업자가 함께 위치하는 공간으로, 고속 주행 차량이 접근할 경우 사고 위험이 크다. 최근 5년간(‘21~’25) 고속도로 작업장 교통사고는 220건 발생했으며, 사망자 수는 49명에 이른다. 특히 ACC 관련 사고 30건 가운데 작업장 추돌사고가 21건, 사망자 수는 20명으로 일반사고 대비 치사율이 높아 작업구간 내 ACC 차량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ACC(Adaptive Cruise Control) : 앞차와의 간격을 맞추고 설정된 속도로 주행하는 운전보조장치



ACC는 선행 차량 추종에 최적화된 레이더 기반 시스템으로, 표지판, 육교, 갓길 시설물 등 정지 물체로 인한 오제동 방지를 위해 센서 반응이 제한되는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도로작업 및 사고처리 등으로 정지 차량, 작업 장비, 작업자가 존재하는 환경에서는 차량이 위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ACC 차량 감속 유도기술은 이러한 ACC 차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주)바이다에서 개발한 안전 기술이다. 이 기술은 작업구간에 접근하는 ACC 차량의 감속을 유도하고, 고속 접근 차량 발생 시 작업자에게 진동과 소리로 위험 경고를 알리는 방식이다.

해당 기술은 시속 110km 주행 상황에서도 차량의 선제적 감속을 유도해 사고 발생 시 차사율을 최대 72%까지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홍 차관은 이날 ACC 탑재 차량에 직접 시승해 'ACC 차량 자동 감속 유도장치'와 '작업자용 사물인터넷(IoT) 안전장치'를 체험하고, 기술의 효과와 현장 적용 가능성을 점검했다.

홍 차관은 “도로 위 작업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첨단 안전 기술이 현장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바이다에서는 향후 ACC 차량 자동 감속 유도장치 소형화와 범용성 확보, AI 기반 성능 고도화, 일반 운전자까지 활용할 수 있는 제품군 확대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교육 일정 안내



2026년 7월 교육일정

연번	교육명	교육기간	교육장소	교육인원	교육비
1	자율주행차/자율주행로봇 센서 퓨전	7.01(수)~02(목) 2일(13h)	협회 교육장 (604호)	15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 53,040원
2	Python 활용 데이터 시각화	7.01(수) 1일(07h)	협회 교육장 (604호)	15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 27,700원
3	VISSIM을 활용한 ITS 구축 효과 분석	7.02(목)~03(금) 2일(14h)	협회 교육장 (604호)	20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 57,100원
4	AX 기반 자율주행 판단 및 경로계획	7.06(월)~08(수) 3일(21h)	협회 교육장 (604호)	18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 무료
5	CCTV 입력정보 처리방식에 따른 영상처리	7.07(화) 1일(07h)	협회 교육장 (604호)	17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 28,120원
6	자율주행 인프라 센서 퓨전	7.08(수)~09(목) 2일(12h)	협회 교육장 (604호)	15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 48,370원
7	ITS 센터 네트워크 구성	7.09(목)~10(금) 2일(16h)	협회 교육장 (604호)	15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 63,290원
8	C-ITS 통신 보안 기술	7.14(화) 1일(04h)	협회 교육장 (604호)	17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 16,330원
9	개인정보보호 및 영상정보보호	7.15(수) 1일(07h)	협회 교육장 (604호)	16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 28,250원
10	교통운영전략 및 ITS 시스템 설계	7.15(수)~16(목) 2일(16h)	협회 교육장 (604호)	15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 61,370원
11	AI 기반 자율주행 딥러닝 인지 기술 구현	7.21(화)~23(목) 3일(21h)	협회 교육장 (604호)	18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 무료
12	ITS 시스템 AI 기술 접목 및 활용	7.21(화)~22(수) 2일(16h)	협회 교육장 (604호)	15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 63,370원
13	ITS 분야 LLM 개발 및 VLM 실습	7.23(목)~24(금) 2일(14h)	협회 교육장 (604호)	15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 57,120원
14	자율주행 검증 평가구현 기술	7.28(화) 1일(07h)	협회 교육장 (604호)	16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 28,020원
15	바이브 코딩 기반 모빌리티 AX 실전: 데이터에서 정책까지	7.28(화)~30(목) 3일(18h)	협회 교육장 (604호)	24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 무료
16	ITS 시스템 변천 및 기술	7.29(수) 1일(07h)	협회 교육장 (604호)	16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 28,030원



Intelligent Transport Society of Korea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지능형교통이 만드는 새로운 일상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15327]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31(일동707-2)

ITS 인증 · 성능평가센터

Tel 031-478-0451 Fax 031-502-0548